

# Zola 생윤

첫해~작년까지의

## ebs 수완 문항

## 주제별 모음(1)

### 1~3단원

- 개념 공부+기출 문제 풀이까지 끝낸 분들을 위한 용도임.
-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진행해도 되고, 처음부터 주욱 봐도 되고, 킬러나 약점 주제 중심으로 봐도 됨. 님들이 알아서 하셈. 1번 풀고 버리면 됨.
- Zola가 답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틀리면 우선 자신을 의심할 것. 그리고 내용 확인할 것.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은 Zola가 잘못된 것임. 그러니 반드시 이상한 것은 질문할 것. Zola는 오류가능한 존재임.
- 자원 절약을 위해 1쪽 2면 인쇄 버전으로 설정하였음.  
열공+즐공=대박!!!

### ■ 주제 목차 ■

Zola 생윤 1 - 개념의 모든 것		Zola(김준호) 선생님	
대단원	주제 번호	주제	백지 복습 정도
1	1-1	윤리학 구분	
	1-2	동양 윤리	
	1-3	서양 윤리	
	1-4	도덕적 추론	
	1-5	밀의 자유론	
2	2-1	죽음관	
	2-2	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2-3	성·사랑	
	2-4	가족 윤리	
3	3-1	직업 사상가	
	3-2	직업 윤리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3-4	정의 기본+아리스토텔레스	
	3-5	분배정의	
	3-6	소수자우대정책	
	3-7	교정정의	
	3-8	국가관	
	3-9	시민불복종	
4	4-1	과학기술과 윤리	
	4-2	정보윤리	
	4-3	환경윤리(서양의 자연관)	
	4-4	환경문제와 미래세대	
5	5-1	예술	
	5-2	의식주	
	5-3	다문화	
	5-4	종교	
6	6-1	소통 윤리	
	6-2	국제관계론	
	6-3	국제평화론	
	6-4	해외원조	
(넉넉하게) 최소 필요 장+a			

# 1-1

## 윤리학의 분류

### zola 풀어!

1)[13 ebs 수완]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이것'은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행위가 이성(理性)에 일치하는지 반하는지를 탐구하는 합리적인 삶에 대한 탐구이며, 무엇이 사람들을 선(善)한 혹은 최상의 삶으로 이끄는지를 탐구하는 선한 삶에 대한 탐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이건 우리의 행위가건, 혹은 우리의 성격이건 간에 어떤 것이 도덕과 일치하고 또 도덕에 반대되는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인 도덕적 삶에 대한 탐구로 생각될 수 있다.

<보기>

- ㄱ.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 ㄴ. 도덕적 행위에 관한 이론으로 구성된 지식 체계를 말한다.
- ㄷ. 사회적 관계의 근본 원리 및 사회 조직의 특징을 탐구한다.
- ㄹ. 공동체의 가치를 배제한 가치 중립적인 형식으로 제기된다.

2)[15 ebs 수완 응용] (가)~(다)의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구분	특징
(가)	선악, 시비(是非)와 같은 윤리적 언어나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도덕 발생의 모태(母胎)는 사회적 관습이므로 도덕 현상을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파악하여 사회학적 방법을 통해 도덕 현상의 특징을 서술한다.
(다)	경제 활동 분야, 환경이나 생명 의료 분야,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각기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한다.

<보기>

- ㄱ. (가)는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을 주로 한다.
- ㄴ. (나)는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목적으로 한다.
- ㄷ. (다)는 의학, 과학 등 관련 학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 ㄹ. (다)는 윤리 이론을 활용하여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16 ebs 수완 응용] A, B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윤리학은 대체적으로 그 대상과 연구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가 A 윤리학이고 다른 하나는 B 윤리학이다. A 윤리학은 도덕적 사회 현상을 사실 과학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한 도덕 현상을 심리적 사실로서 연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A 윤리학은 도덕 현상이나 도덕규범이 역사적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도덕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하여 B 윤리학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관한 도덕의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해 준다. B 윤리학에서는 도덕의 본질과 판단의 의미, 나아가 그 타당성 등을 철학적으로 연구한다. 이러한 B 윤리학에는 목적론적 윤리학과 의무론적 윤리학 등이 있다.

<보기>

- ㄱ. A 윤리학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적인 도덕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 ㄴ. A 윤리학은 다른 문화권의 행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개입시킬 것을 강조한다.
- ㄷ. B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학문적 탐구 과제로 삼는다.
- ㄹ. B 윤리학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윤리 문제들에 대해 학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ㅁ. B 윤리학은 A 윤리학과 달리 현실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4)[17 ebs 수완] (가), (나), (다)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가) 도덕적 발화(發話)나 가치의 문제들은 전적으로 지식의 영역 밖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 서로 다를지라도 여전히 참일 수 있는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나) 도덕을 단순히 고립된 정지적 표현이나 태도로 환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도덕은 그 이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도덕 판단은 모든 도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타당한 보편적 규범화가 가능하다.
- (다)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접 학문에 대해 열린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의학, 경제학, 법학, 심리학 등의 지식은 실질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기

- ㄱ. (가)는 도덕 판단인 "자선은 선(善)이다."를 논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ㄴ. (나)는 도덕 규칙의 정립을 통해 윤리적 판단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 ㄷ. (다)는 도덕적 쟁점인 분배 정의나 시민 불복종에 대해 도덕적 해결 의지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 ㄹ. (나)와 (다)는 도덕 판단과 관계가 없는 사실 판단의 논리적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5)[19 ebs 수완]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논리적 규칙을 명백히 하여 도덕적 신념이 참 또는 거짓으로 확증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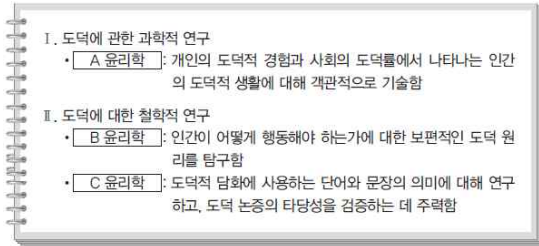
윤리학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삶의 지침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 ① 갑은 도덕적 명제의 타당성 검증보다 실천적 윤리 규범의 제시를 강조한다.
- ② 을은 도덕적 행동의 지침이 될 보편적 당위 명제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 ③ 병은 사람들이 따르는 도덕규범을 당위가 아닌 경험적 사실로 볼 것을 강조한다.
- ④ 병은 갑과 달리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 ⑤ 갑, 을, 병은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보다 선악의 의미를 명료화할 것을 강조한다.

8[18 ebs 수완 응용] 그림은 노트 필기 내용이다. A, B, C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기>

- ㉠. A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경험에 근거한 문화적 사실로 본다.
- ㉡. B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이론들의 타당성을 밝혀 내는 것에 관심을 둔다.
- ㉢. C 윤리학은 추론 규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도덕적 지식의 인식 방법을 검토한다.
- ㉣. B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C 윤리학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7[20 ebs 수완] 알아서 골라.

갑: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특정한 생활 영역과 행동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실천적인 학문이 되어야 하며, 도덕규범의 당위적 요구와 개개의 도덕 행위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을: 윤리학은 전 세계 사회 집단들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을 문화적 사실로 보고, 도덕적 관행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을 학문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병: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도덕 원리와 도덕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옳은 행동에 관한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보기

- ㉠. A: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이 인접 학문의 영역과 분리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E: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 A, C: 윤리학이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당위의 학문이어야 함을 간과한다.
- ㉣. B, D: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문화 전반의 도덕적 관행에 대한 과학적 기술에 두어야 함을 간과한다.

8[22 ebs 수완] (가), (나)의 입장에서는 긍정, (다)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 보편적 도덕 법칙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생명 복제, 사형 제도, 기후 정의 문제 등 현대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 (다) 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에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이나 진술이 참 혹은 거짓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 ①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 분석인가?
- ②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하는가?
- ③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가 윤리학의 핵심 목표인가?
- ④ 윤리학은 타 학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 ⑤ 윤리학은 도덕적 실천을 위한 도덕 이론의 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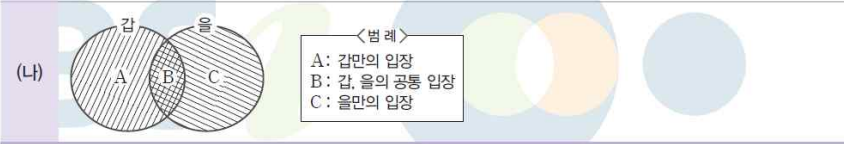
# 1-2

## 동양 윤리 이론 (수완 2강)

zola 풀어!!

9)[20 ebs 수완] 있는 대로 골라.

- (가) 갑: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풀로 엮어 만든 개로 여기며, 성인(聖人)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풀로 엮어 만든 개로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아 속은 텅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다.  
 을: 하늘이 내리는 벼슬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있다. 인의(仁義)와 충신(忠信)을 행하고 선(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늘이 내린 벼슬이고, 공경대부(公卿大夫)는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 보기**
- ㄱ. A: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여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  
 ㄴ. B: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  
 ㄷ. B: 덕(德)에 따라 살아야 이상적인 삶을 구현할 수 있다.  
 ㄹ. C: 하늘을 인간이 따라야 할 삶의 표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10)[14 ebs 수완]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가), (나), (다)는 동양 윤리 사상이다. 각각의 밑줄 친 '성인'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

(가)	군자의 도(道)야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말단적인 일과 근본이 되는 일을 두루 잘 하는 사람은 <u>성인</u> 일 게다.
(나)	미혹하고 어리석음에서 해탈하여 깨달음을 얻고(轉迷開悟), 범부(중생)적인 것을 고쳐서 <u>성인</u> 이 된다(革凡成聖).
(다)	성인은 무위(無爲)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펼친다.

◎ 학생 답안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각각이 추앙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성인'이라 하였다, ㉡(가)는 사리에 밝고 덕과 지혜를 지닌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성인이라 하고, ㉢(나)는 세속의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성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다)는 세속적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대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을 성인으로 본다, 따라서 ㉠(가)는 (나), (다)와 달리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세속에서 벗어난 삶을 강조한다.

11)[14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뛰어난 덕을 가진 사람은 덕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덕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덕이 적은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덕이 더 적어지게 마련이다. 도(道)를 잃은 뒤에 덕이 생겨나고, 덕을 잃은 뒤에 인(仁)이 생겨나고, 인을 잃은 뒤에 의(義)가 생겨나고, 의를 잃은 뒤에 예(禮)가 생겨난다.
- ① 인(仁)은 만물 생명의 근본 이치인가?
  - ② 인위적인 사회 제도와 규범에 따라야 하는가?
  - ③ 인의예지의 덕을 부정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선천적 본성을 변화시켜야 할 존재인가?
  - ⑤ 일체의 현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작용되는가?

12)[14 ebs 수완] 골라!

**제자** : 스승님, 제자 가운데 저만큼 고행을 하고 있는 이도 없는데, 왜 아직까지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스승** : 수행자여, 그대는 예전에 거문고를 잘 연주했다고 들었다. 거문고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줄이 너무 조여지거나 너무 느슨하지 않고 적당히 알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 수행도 마찬가지네. ㉠

- ①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네.
- ②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실천해야 하네.
- ③ 인위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난 무위자연의 삶을 중시해야 하네.
- ④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지향해야 하네.
- ⑤ 천지 만물에 흐르는 기운(氣運)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네.

13)[15 ebs 수완] 틀린 것은?

(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버려 둔다. 성인(聖人) 또한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나) 인드라 하늘에는 진주 그물이 있고, 그 그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만일 사람이 어떤 한 진주를 주시한다면 그것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계 내의 각각의 대상들은 단지 그것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대상들을 서로서로 포함한다.  
 (다)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이다. 나는 여기에 미미한 존재로 그 가운데 살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천지의 기운을 내 몸으로 여기고 또한 천지를 주재하는 이치를 내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이 내 형제이고 만물이 내 동반자다.

- ① (가)는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과 통제를 거부한다.
- ② (가)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간주한다.
- ③ (나)는 자연의 생명력을 도(道)의 도덕적 표현으로 본다.
- ④ (나)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인연(因緣)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다.
- ⑤ (다)는 조화론적 관점에서 자연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14[15 ebs 수완] 골라!!!!

- 부귀(富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거든 자기 것으로 삼지 마라. 반면, 빈천(貧賤)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 그러나 자기 잘못이 아닌데 빈천하게 되었다라도 남을 탓하지 마라. ㉠이/가 인(仁)에서 벗어나고서야 어찌 ㉡(이)라는 이름을 이루랴. ㉢(이)란 밥 먹는 짧은 시간에도 인을 벗어나지 않으며, 황당하고 당혹한 때에도 인을 실천한다.
- 옛날의 ㉣은/는 역경이 닥쳐도 그것을 억지로 거역하지 않았다. 그는 성공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일도 피하질 않았다. 이러한 분은 잘못을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았으며 잘못되어도 잘되었다고 우쭐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물속에서도 젖지 않으며 불 속에서도 뜨거워하지 않는다. 이는 세속의 앓을 넘어 자연의 도리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보기>

- ㉠. ㉠은 사욕(私欲)을 극복하여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 ㉡. ㉡은 참선을 통해 모든 잡념을 없애는 삼매(三昧)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 ㉢. ㉢과 달리 ㉣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중생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 ㉣. ㉣은 수양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15[21 ebs 수완]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나라의 ㉠전 씨가 자택 뜰에서 어떤 사람의 송별회를 열었다. 손님이 천 명이나 모여들었는데, 그중에 물고기와 기러기를 선물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 전 씨는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아, 하늘의 은총이 참으로 깊다. 인간을 위해 오곡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길러 인간에게 쓰이게 해 주시는구나.” 둘러선 손님들이 입을 모아 전 씨의 말에 \*찬동하였다. 그때 ㉡포 씨의 열두 살짜리 아들이 나서며 말했다. “천지 만물은 모두 우리와 같은 동료입니다. 동료들 사이에 귀천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차이, 지혜와 힘의 차이에 따라 서로 잡아먹고 있을 뿐이지, 다른 것에게 \*소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제멋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잡아먹을 따름이지, 하늘이 인간에게 먹이기 위해 그것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모기나 파리 떼가 인간의 피를 빨고 호랑이와 늑대가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하늘이 모기와 파리를 위해 인간을 만들고, 호랑이와 늑대를 위해서 동물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 찬동(贊同): 어떤 행동이나 견해 따위가 옳거나 좋다고 판단하여 그에 뜻을 같이함  
소용(所用): 쓸 곳, 또는 쓰이는 바

- ① ㉠: 만물은 각자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② ㉠: 연기의 법을 이해해서 자비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 ③ ㉡: 만물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가치를 지닌다.
- ④ ㉡: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무위의 체계이다.
- ⑤ ㉠, ㉡: 자연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16[15 ebs 수완] 골라!

경(敬)의 공부는 다음과 같다. 마음을 하나로 하여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主一無適]이고, 몸가짐을 가지런하게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하는 것[整齊嚴肅]이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常惺惺]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단속하여 한 가지의 잡념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 ① 세상을 초월하여 자신만의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한다.
- ② 시비(是非)의 분별에서 벗어나 인의(仁義)를 실천한다.
- ③ 연기성을 깨달아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④ 도덕적 본성을 확충하기 위해 예(禮)에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나[我]에 대한 집착으로 생긴 탐욕을 버리고 해탈을 추구한다.

17[20 ebs 수완, 윤사]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의 갑에게 제시할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배, 꿀, 유자와 같은 과일나무들은 열매가 맛있게 익으면, 사람들이 열매를 따기 위해 나무껍질을 벗기고 작은 가지는 끊어당기고, 큰 가지는 꺾는다. 이것은 그 나무들의 열매가 맛있게 때문이다. 그들은 맛있는 열매로 인해 그들의 자연스러운 수명을 마치지 못하고 증도에 요절하게 된다. 사물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쓸데없는 것이 되기를 구한 지 오래이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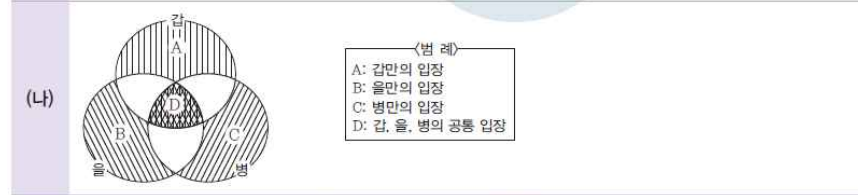
위나라 왕이 '갑'에게 큰 박의 씨앗을 주기에 '갑'이 그것을 밭에 심었다. 박이 익으니 그 크기가 다섯 섬이나 되었다. 박을 쪼개어 표주박을 만드니 너무 커서 담을 만한 것이 없었다. '갑'은 그것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여 모두 부수어 버렸다.

<보기>

- ㉠. 인간의 편협한 관점에서 사물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 사물의 크고 작음과 같은 특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 ㉢. 사물의 본성을 잘 살피고 높음과 낮음의 중간을 관별해야 한다.
- ㉣. 소요유(逍遙遊)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물을 활용해야 한다.

18) [20 ebs 수완, 윤사] 바나나 문제 하나 가져왔음. 정답을 고르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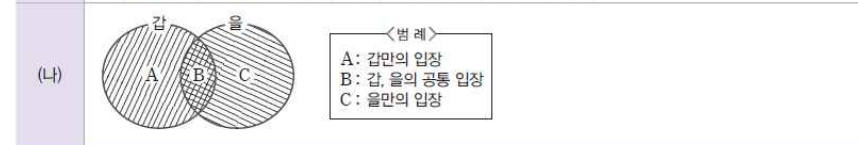
(가) 갑: 군자는 먹는 데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으며, 거처하는 데 편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하고, 말은 신중히 하며, 도(道)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는다. 그러면 기히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을: 성인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환난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사물이 느껴지면 그에 따라 반응하고 일이 닥치면 그때 움직이며 부득이해야 비로소 일어난다. 지혜와 기교를 버리고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늘의 재난도 없고 물건으로 인한 번거로움도 없고 사람들의 비난도 없고 귀신의 책망도 없다.  
 병: 보살(菩薩)들이여, 법(法)에는 단박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깨달음을 구하게 되고, 영리한 사람은 단박에 깨닫게 된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이가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 ① A: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② B: 심재와 좌망을 실천하여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
- ③ C: 도덕 덕목의 탐구와 실천을 통한 인격 완성을 학문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④ C: 보살행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경지를 실현해야 한다.
- ⑤ D: 인간은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19) [22 ebs 수완] 알아서 골라.

(가) 갑: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얼마 되지 않으니,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고 군자는 이것을 보존한다. 순임금은 인륜을 잘 살렸으니 인의에 따라 행한 것이지 인의를 실행한 것은 아니다.  
 을: 천지는 위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말로 할 수 없고, 만물은 생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다. 성인이란 천지의 아름다움을 근원으로 삼고 있고, 만물의 원리에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인은 무위하며, 위대한 성인은 작위가 없는데, 천지에 통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기  
 ㄱ. A: 통치자는 인의의 덕을 바탕으로 백성의 교화에 힘써야 한다.  
 ㄴ. B: 수양을 통해 타고난 덕성을 실현해야 한다.  
 ㄷ. B: 사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ㄹ. C: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며 분별적인 지식을 버려야 한다.

20) [22 ebs 수완] 옳지 않은 것은?

색(色)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我]가 아니며,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我所]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受)·상(想)·행(行)·식(識)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하느니라. 거룩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곧 색을 싫어하고, 수·상·행·식을 싫어하게 되며,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게 된다. 해탈하면 진실한 지혜가 생기나니, 이른바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梵行)은 이미 쇠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 ① 중도의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자아를 구성하는 오온은 변하지 않는 실체이다.
- ③ 선정과 지혜를 바르게 닦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④ 만물의 상호 연관성을 깨달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⑤ 무명과 탐욕에서 벗어난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 1-3

## 서양 윤리 이론 (수완 2강)

zola 풀어!!

21)[21 ebs 수완]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 하라. 인간은 순수한 실천 법칙들을 인식할 수 있다.</p> <p>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 쾌락에는 양적인 것은 물론 질적인 것도 있다.</p>
(나)	

- ① A: 정언 명령은 물론 가언 명령에 따른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② A: 의무가 아닌 경향성으로부터 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A: 행위의 도덕성을 행위가 산출하는 행복의 증진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B: 행위의 도덕성과 그 행위의 동기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B: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2)[20 ebs 수완] 틀린 것은?

갑: 우리가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던,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된다.

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지극히 악하거나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조차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 ① 갑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 쾌락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 ② 갑은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선의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23)[20 ebs 수완]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있는 대로 골라.



선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대상이요 목적입니다. 자연적 욕구의 세 차원에 따라서 자연법의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자기 보존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연법에 속하게 됩니다. 둘째, 동물과 인간에게 있는 욕구로서 암수 결합의 욕구, 자식 교육의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와 관련된 규범과 원리들은 자연법에 해당됩니다. 셋째,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신과 관련된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자연법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보기

- ㄱ. 자연적 욕구 중에는 동식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 있다.
- ㄴ. 인간의 자유 의지에 기인하는 자살도 자연적 욕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 ㄷ.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명령은 자연법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 ㄹ. “결혼하여 자손을 늘리라.”라는 명령은 자연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24)[18 ebs 수완] 니가 알아서 zola 골라!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이 중에서 인간이 이성 따라 행위 하려는 경향성을 갖는 것은 올바르다. 선을 행해야 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법의 첫 번째 원리로서, 자연법에 속한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실천 이성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선으로서 이해하는 것들은 모두 자연법의 계율에 속한다. 그러나 선은 목적의 본성을 갖고 악은 그 정반대의 본성을 갖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선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그 결과 추구의 대상이 되며, 그 반대는 회피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계율의 질서들은 자연적인 경향성의 질서를 따른다.

보기

- ㄱ.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므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 ㄴ. 인간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실현하는 것이 자연법의 최고 명령이다.
- ㄷ. 이성적인 심사숙고가 반영된 절제, 용기와 같은 덕은 자연법에 부합한다.
- ㄹ. 이성적인 인간은 어떤 도덕 원리가 참인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25)[16 ebs 수완]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신들이 하는 일들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운명도 자연의 섭리가 지배하는 복잡한 인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만물은 섭리에서 흘러나온다.
- 네 의무를 수행할 때에는 즐든, 따뜻하든, 졸리든, 폭 잣든, 욕을 듣든, 칭찬을 듣든, 죽어가든 또는 그 밖에 다른 것을 하든 개의치 마라. 죽는 것도 삶의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_\_\_\_\_ ㉠ \_\_\_\_\_

- 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② 우주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 ③ 공감을 통해 해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④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유용성에 두어야 합니다.
- ⑤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26)[20 ebs 수완] 알아서 골라.

행위와 관련해서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옳르게 성공한다. 이 양자가 품성적 덕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보기**

- ㄱ. 품성적 덕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이다.
- ㄴ. 모든 행위에는 그것에 적합한 중간적인 상태가 존재한다.
- ㄷ.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미덕의 특징이다.
- ㄹ. 유덕한 품성을 갖추려면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내면화해야 한다.

27)[17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맞게 대답한 것은?

갑: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려는 확고하고 영원한 의지와 관련된 것이며,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는 창조적 행위는 곧 자연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창조된 자연적 질서는 "신은 추구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를 제1계명으로 삼는다.

을: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란 준칙에 따른 행위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각자의 자유와 공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행위의 도덕성을 도덕 법칙에 근거한 의무의 실천에 두는가?	예	예
②	행위의 도덕성을 가장 큰 유용성을 산출할 규칙의 준수에 두는가?	아니요	예
③	행위의 도덕성은 사회 공동체 전통의 실천과 관련해서 결정되는가?	예	아니요
④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예	아니요
⑤	행위의 정당성은 신에 의한 자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28)[17 ebs 수완] 갑, 을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가치와 책임의 대상은 경제적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장 적은 비용과 희생을 통해 가장 높은 순이익과 쾌락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 즉 '비용-편익 분석(CBA)'은 윤리적으로도 정당화가 가능하고, 여러 대안에 대한 가장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을: 가치와 책임에 관한 미래 지향적인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이다. 따라서 '예방적 책임' 대상에는 인간은 물론 생명 공동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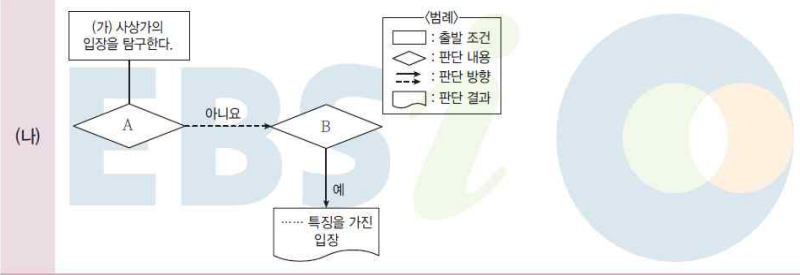
**보기**

- ㄱ. 갑은 주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 ㄴ. 을은 비호혜성의 원리를 수용해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한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책임의 전제 조건인 생명이 공리성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ㄹ. 갑, 을은 행위와 정책의 옳고 그름이 행위자의 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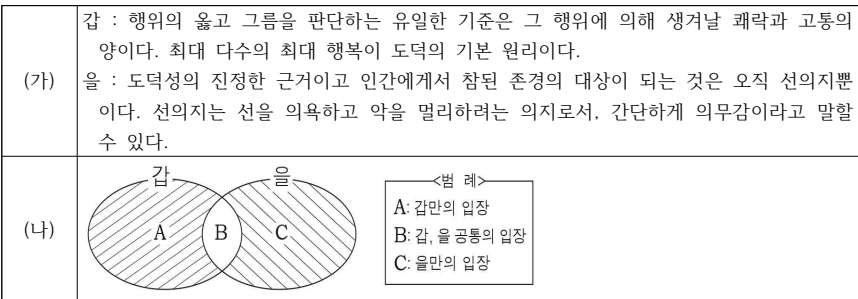
29)[16 ebs 수완]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품성적 덕에 속하는 것이다.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은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옳르게 성공한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 ① A : 품성적 덕은 유덕한 행위를 반복하여 실천함으로써 획득되는가?
- ② A : 공동체적 삶 속에서 유덕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③ B :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산술적인 평균의 상태인가?
- ④ B : 사회적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즐겨야 하는가?
- ⑤ B : 행위가 가져다줄 쾌락보다 행위자의 품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30)[16 ebs 수완]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 <보기>
- ㄱ. A : 행위의 도덕적 정당화 근거는 유용성이다.
  - ㄴ. A : 행위의 도덕성은 그 결과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ㄷ. B : 자연적 경향성을 초월한 인간만이 존엄하다.
  - ㄹ. C : 도덕은 이성에 의해 부과된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31)[16 ebs 수완 활용] 갑, 을의 관점에서 <사례> 속 K의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평가할 때, 이들이 제시할 이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갑: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는 그 행위가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을 위해 이성적 존재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최고의 선은 오직 이성적 존재의 의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법칙에 대한 표상 그 자체만이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부르는 탁월한 선을 이룬다. 을: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선을 행하고 추구해야만 하며 악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은 이것 위에 세워져 있다. 모든 실체는 각자의 종류에 알맞은 방법으로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결과로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가 자연법에 속한다.

<사례>  
A는 말기 암 환자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다. 또한 아내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는 의사의 도움으로 죽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가 옳지 않은 일이라 여겨 포기하였다.

- <보기>
- ㄱ. 갑: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ㄴ. 갑: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법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 ㄷ. 을: 고통을 피하려는 자연적 성향을 따랐기 때문이다.
  - ㄹ. 을: 보편적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 ㅁ. 갑, 을: 이성이 아니라 보편적 원리에 근거하여 행위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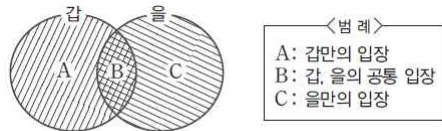
32)[19 ebs 수완] 다음 사상가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세계가 신의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주의 모든 공동체가 신의 마음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신의 마음은 단지 시간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겨난 법 또한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 신의 법칙은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며, 인간의 본성은 신의 법칙을 반영한다. 신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만든 목표는 그가 우리에게 따르도록 만든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원한 법칙으로부터 생겨난 규칙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 또는 성향과 일치한다. 자연적 성향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향하게 하고 신이 우리에게 선택한 것으로 규정한 목적들을 향하게 하는데, 또한 그것은 곧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①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 ② 자연법에 부합하는 행위는 신의 영원한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이다.
- ③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의 도덕적 기준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 ④ 신의 섭리에 부합하는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 ⑤ 자연적 성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이 부여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33)[19 ebs 수완] 갑, 을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니가 직접 골라!!

갑: 절제 있는 행위를 해 봄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기 있는 행위를 해 봄으로써 용기 있게 되는 것이다. 품성적인 덕은 중용을 택하여 행동하는 성품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의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즉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간이자 최선이다.  
 을: 절제나 용기, 끈기와 같은 기질의 속성들도 틀림없이 여러 면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거나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이 세계에서나 이 세계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보기**

- ㄱ. A: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 상황에 맞는 품성적 덕을 발휘해야 한다.
- ㄴ. B: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적 욕구에 근거해 절대적 도덕 원리를 확립해야 한다.
- ㄷ. B: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 ㄹ. C: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야 한다.

34)[20 ebs 수완] 옳은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관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도덕 이데올로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독립은 권리의 윤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친밀은 보살핌의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 권리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평등의 개념이며, 공정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데 반해, 보살핌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의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여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게 되며, 성숙한 도덕적 행위자는 권리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① 여성의 도덕적 관점과 남성의 도덕적 관점은 화해될 수 없다.
- ② 무조건적 자기희생과 보살핌을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③ 타인의 필요가 아니라 평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 ④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은 독립과 친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 ⑤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35)[20 ebs 수완] 옳지 않은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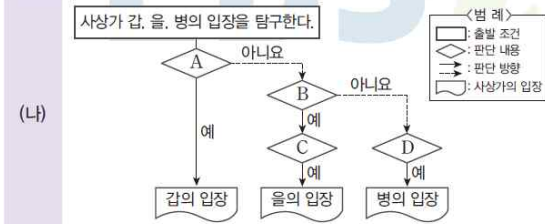


- ①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 ②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
- ③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된다.
- ④ 인류의 존속을 위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 ⑤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게는 호혜적 책임의 의무가 서로에게 부과된다.

36)[19 ebs 수완] 있는 대로 고르셈!

갑: 행위의 도덕성은 선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덕을 내면화하여 선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덕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가) 을: 행위의 도덕성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성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 병: 행위의 도덕성은 의무의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칙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나 우연적 환경에 근거하지 않으며,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무조건적이고 필연적 의무로 다가온다.



**보기**

- ㄱ. A: 보편적 행위 규칙의 준수보다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에 주목해야 하는가?
- ㄴ. B: 타인을 배제한 개인의 행복 증진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ㄷ. C: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가 산출할 쾌락과 고통의 양인가?
- ㄹ. D: 도덕적 행위는 의무로 부과되는 강제의 법칙을 따르는 타율적 행위인가?

37)[20 ebs 수완] (가) 윤리학 입장에서 (나)의 사례에 대해 내릴 적절한 판단만을 있는 대로 골라.

- (가) 인간의 행위는 자유 의지가 작동하기 전에 이미 뇌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즉 신경 세포 뉴런은 인간 행위의 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이 자유 의지에 의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암시가 있기 한참 전에 그 행위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 (나) A는 사고로 뇌의 전두엽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사고 후 A는 이전과는 달리 정상적인 억제 능력을 상실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뇌의 명령에 의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보기**

- ㄱ.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인간의 감정과 인지를 통제한다.
- ㄴ. 뇌신경의 지배를 초월하는 인간의 자유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ㄷ. 인간의 뇌보다는 자유 의지가 우선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통제한다.
- ㄹ.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만큼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38)[20 ebs 수완, 윤사] 고대 서양 사상이 가파고 현대 서양 사상이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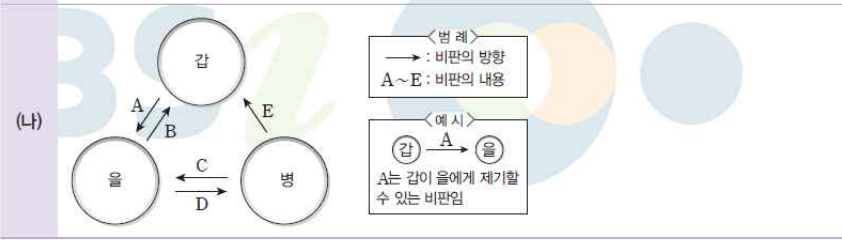
갑: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 덕이며,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지성적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을: 덕은 획득된 자질이며, 덕을 실천함으로써 관행에 내재된 선(善)을 성취할 수 있다. 관행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복합적인 형식의 협동적인 인간 활동이다. 모든 관행은 역사를 지니며, 관행의 역사는 그것이 편입되어 있는 전통의 역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① 덕의 소유와 실천은 전통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 ② 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덕의 획득과 실천은 필수 조건인가?
- ③ 행위자의 품성보다는 행위의 보편적 도덕 원리를 증시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이 추구할 목적은 지속적인 삶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인가?
- ⑤ 일상생활에서 덕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실천적 지혜는 불필요한가?

39)[20 ebs 수완, 윤사] 윤사지만 생윤 기본 지식으로도 풀 수 있음.

- (가) 갑: 공리의 원칙은 이해 당시자의 행복의 양을 증가,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정부의 모든 정책에 적용된다. 이때 행복의 총량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일곱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 을: 짐승의 쾌락이 인간의 행복 개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 쾌락도 쾌락 나름이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병: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인식은 경험에 의거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규칙들을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타당한 도덕 법칙을 줄 수 없다.



- ① A: 최대 행복의 원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임을 무시한다.
- ② B: 쾌락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 ③ C: 행복의 원리는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④ D: 행위의 도덕성은 선의지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⑤ E: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

40)[21 ebs 수완, 윤사] 있는 대로 골라(쉬운 듯)

- (가) 우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최대의 공리를 갖는가를 살펴야 한다. 옳은 행위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 (나) 우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최대의 공리를 갖는가를 살펴야 한다. 옳은 행위는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여 다른 규칙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을 따른 것이다.

**보기**

- ㄱ. (가): 행위의 결과가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
- ㄴ. (가):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 ㄷ. (나): 어떤 종류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은 옳은 행위가 될 수 있다.
- ㄹ. (가), (나): 행위의 동기가 선하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41)[21 ebs 수완, 윤사] 생운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음. 비판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

(가) 갑: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여 비교하라.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그 행위의 좋은 경향을 말해 줄 것이고, 고통 쪽으로 기울면 그 반대의 경향을 말해 줄 것이다. 이때 쾌락은 일곱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을: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병: 쾌락에 몰두한 사람이라도 '쾌락에 몰두하기 위해 자신의 천부적 자질을 방치해도 된다.'라는 준칙이 법칙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 ① A: 최대 행복의 원리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사회 전체의 행복 증대는 개인들 행복의 총합 증가에 불과함을 부정한다.
- ③ C, E: 도덕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④ D: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한다.
- ⑤ F: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방법임을 간과한다.

42)[21 ebs 수완, 윤사] 다음을 주장한 현대 사상가의 입장을 있는 대로 골라.

나는 오직 개인의 자력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의 시민이며, 이 직업 집단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담지자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나의 삶의 주어진 사실과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이것은 나의 삶에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보기

- ㄱ. 덕은 실천에 내재하는 선들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성향이다.
- ㄴ. 특정한 공동체적 삶에 영향을 받지 않은 보편적 덕의 실천이 요구된다.
- ㄷ.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와 도덕적 전통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 ㄹ. 선을 탐구할 때 필요한 덕은 좋은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43)[22 ebs 수완] 고르세요!

(가) 갑: 우리가 따라야 할 정언적 명령법은 단 하나뿐인데, 그 준칙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위 하라는 것이다.  
 을: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쾌락은 한 가지뿐이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이 각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이다.

(나)

보기

- ㄱ. A: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가?
- ㄴ. B: 인간에게 자연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의무로 부과되는가?
- ㄷ. C: 정신적 쾌락과 달리 감각적 쾌락은 측정이 가능한가?
- ㄹ. C: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가?

# 1-4~1-5

## 도덕적 추론 + 토론·성찰(수완 1강)

zola 풀이!!!

44[15-6+16-6 응용]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다 골라.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이 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야 진리가 된다.
- ②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
- ③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 ④ 자유로운 논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 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다.
- 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45[19 ebs 수완]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자네의 주장을 잘 살펴보았네. 그러나 논쟁 과정에서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네. 만일 소수 의견을 가진 한 사람을 강제로 침묵시킬 경우, 강제로 침묵시킨 한 사람의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으며, 그 경우 진리는 드러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네. 다수는 자신들이 확실하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침묵시키겠지만, 다수의 오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네. 설사 침묵된 의견이 오류일지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 속에 포함된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네.

- ① 소수 의견을 수용하여 도출된 결론이 절대적 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②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 집단의 주장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 ③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켜 토론 과정에서 의사 결정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 ④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소수 의견자의 발언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⑤ 토론의 궁극적 목적은 다수 의견이 진리임을 재확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6[21 ebs 수완] (가)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해 반론의 논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자율성"은 '자기 규제', '자기 통치'를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최소한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간섭으로부터, 그리고 의미 있는 선택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기 규제를 의미한다. 어떤 존재가 자율성을 지닌다는 말은 그 존재가 인격체라는 의미이고, 이를 결여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격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나)	다음은 인공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논증들 중 하나이다.	
	전제 1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행위이다.	+ 전제 2 _____ ㉠ _____
	↓	
	결론 그러므로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행위이다.	

- ① 태아는 인격체인 성인처럼 인류의 종(種)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다.
- ② 태아는 인격체가 될 가능성을 지닌 잠재적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다.
- ③ 태아는 자의식을 갖고 자기 운명에 대한 지배력을 지닌 인격체가 아니다.
- ④ 인간의 범주에는 성찰적 사고 능력을 지닌 존재는 물론 태아도 포함된다.
- ⑤ 수정-태아-출산-성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유전적 동일성을 지닌다.

47[17 ebs 수완]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을 다 골라.

윤리적 토론을 위한 각 과정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윤리적 토론의 과정:  
① 주장하기 → ㉠ 반박하기(반론) → ㉡ 방어하기(재반론) → ㉢ 반성 및 정리하기

㉠ 단계에서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잠정적 인 생각을 제시해요.

㉡ 단계에서는 자신의 잠정적 주장을 발표하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요.

㉢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근거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이 타당하면 자신의 사실 근거를 철회해야 해요.

㉣ 단계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반드시 예외 없이 보편타당한 확정 결론을 내린 다음 마무리해요.

48) [21 ebs 수완]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각자를 한층 지직이며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게 해 줍니다. 각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타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또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 자신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면, 개인은 그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고유한 개성이 아니라 사회의 전통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개별성은 상실될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은 물론 사회의 발전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 낸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 ① 각자는 자기 자신만이 적용을 받는 행위들에 대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 ② 각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을 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 ③ 각자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통제를 받아야 한다.
- ④ 각자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스스로 떠맡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 ⑤ 각자의 표현의 자유는 다수의 의견이나 공동체의 관행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한다.

49) [20 ebs 수완] 다음 가장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게  
 자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네.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려고 하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고, 본성은 모든 착함의 근원이므로 공부의 시작은 흠어지고 해이해져 놓아 버린 마음, 즉 방심(放心)의 상태를 거두어 덕성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임을 명심했으면 하네. 이에 자네가 공부를 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공부에 전념하게나. 첫째, 마음을 한군데에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하고[主一無適], 둘째,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며[整齊嚴肅], 셋째, 항상 깨어 있어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常惺惺] 노력해 보게. ... (후략)

- ① 심성(心性)을 올바르게 갈고닦아야 한다.
- ② 경(敬)의 자세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 ③ 흠어져 놓아 버린 마음을 거두어 덕성을 길러야 한다.
- ④ 시비(是非)의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 ⑤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바로잡아 절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 2-1

## 삶과 죽음(수완 3강)

zola 풀이!

50) [20 ebs 수완]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

갑: 참된 사람(眞人)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세상에 나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저승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그는 삶을 받아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잃어도 기뻐한다.

을: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는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이며,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의 빛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타옴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범행: 출가한 수행자의 삶

- ①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 ② 업(業)이 소멸하면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③ 의도적 행위와 관계없이 삶과 죽음이 순환될 수 있는가?
- ④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가?
- ⑤ 삶은 기(氣)의 생성, 죽음은 기의 소멸로 보아야 하는가?

51) [14 ebs 수완]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삶이 없었고, 형태조차도 없었고, 기운도 없었다. 이렇듯한 가운데 뒤섞여 있다가 기운이 생겨나고, 이것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삶이 있게 되었다.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것이다.

을 :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고통이다. 만일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죽으면 우리 의식은 살아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은 삶과 죽음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본다.
- ㄴ. 을은 죽음과 동시에 인간의 감각이 사라진다고 본다.
- ㄷ. 갑은 삶과 죽음을 엄격히 구분하고, 을은 하나로 본다.
- ㄹ. 갑, 을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52) [16 ebs 수완 활용]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쁜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을 :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육체로부터 떠나야 한다.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기>

- ㄱ. 갑은 삶과 죽음을 기의 흐름으로 본다.
- ㄴ. 갑은 삶과 죽음을 차별이 없다고 본다.
- ㄷ. 을은 죽음을 육체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본다.
- ㄹ. 갑, 을 모두 죽은 후에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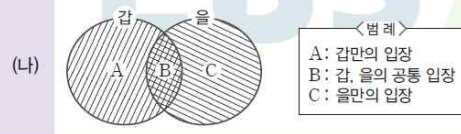
53)[18 ebs 수완]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을 골라.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는 동물의 시체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고인(故人)'이 되며, 그러한 존재로서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서 추모해야 할 존재가 된다. 고인의 유족들은 그를 '경건하게 추모하면서' 그와 함께 존재한다.

견해	학생	갑	을	병	정	무
고인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 사물로서의 존재 의미만을 갖는다.		√	√			√
현존재는 타인과 함께 있기에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	√
현실 세계 내에서 유족들은 여전히 고인과 더불어 있을 수 있다.			√	√	√	
현존재는 고인의 '죽음'을 고인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	√	√

54)[20 ebs 수완]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갑: 육체의 도움을 받아 영혼이 무엇을 탐구하려 한다면 영혼은 길을 잃을 것이다. 영혼은 육체를 무시하고 최대한 독립했을 때 최상의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은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와의 모든 결합을 피하고,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나가야만 올바른 인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을: 실재하는 것은 오직 원자들과 그것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들뿐이다. 영혼도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물체일 뿐이다. 영혼은 그것을 보호해 주는 몸이 분해되면, 자신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 자체도 흩어져, 더 이상 이전에 가졌던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죽음과 함께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 ① A: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이다.
- ② A: 죽음은 영혼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③ B: 죽음은 참된 행복을 위해 견뎌야 할 고통에 불과하다.
- ④ C: 죽음은 원자의 분해로서 모든 인식을 불가능하게 한다.
- ⑤ C: 죽음의 본질을 알면 사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55)[18 ebs 수완] 골라.

선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대상이요, 목적이다. 욕구의 세 차원에 따라서 자연법의 세 차원이 있다. 첫째, 식물과 동물 모두 자기 보존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연법에 속한다. 둘째, 동물과 인간에게 있는 욕구로서, 암수 결합의 욕구, 자식 교육의 욕구가 있다. 두 욕구를 행위로 옮기는 규범과 원리들은 자연법에 해당된다. 셋째,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신과 관련된 진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지를 벗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자연법의 내용을 다룬다. 따라서 자기 보존, 남녀의 결합, 자녀 양육,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은 자연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자살이나 동성애, 유아 살해, 살인과 폭력 등은 자연법적으로 악이다. 자연법적으로 악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악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달리 반박할 수 없는 자명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자연적 욕구와 자연법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 ㄴ. 자연적 욕구에는 동식물과 공유하지 않는 인간만의 고유한 욕구가 존재한다.
- ㄷ. 자살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신에 대한 생명의 의무를 어기는 행위이다.
- ㄹ. 자살은 자연적 성향인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56)[19 ebs 수완] 애를 골라!

인간의 이성(理性)은 좋음(善)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이와 반대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파악한다. 첫 번째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좋음으로, 이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보존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인간에 내재한 자연적 성향은 동물과 공유하는 좋음으로 종족 보존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내재한 자연적 성향은 이성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신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고 공동체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무지(無知)의 극복, 의사소통해야 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자연법의 명령과 일치한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		√	
자살은 이성적 존재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자율적 행위이다.				√	√	√
자살은 고통을 피하고 좋음(善)을 추구하려는 자연적 본성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			√	√
자살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신이 부여한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	√		√

57[22 ebs 수완]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법(法)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으며, 어떤 법을 인연(因緣)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일까? 곧바로 바른 사유[正思]에 의해 바른 해답이 연이어 일어난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고, 태어남을 인연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다.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없으며, 어떤 법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소멸하는가? 곧바로 바른 사유에 의해 바른 해답이 연이어 일어난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병들·죽음이 없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병들·죽음이 소멸한다.

- ① 무상(無常)한 모든 생명은 죽음 이후에야 변화를 멈추는가?
- ② 연기의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윤회는 불가피한 것인가?
- ③ 죽음의 근본 원인에 대해 궁구하여 무명(無明)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④ 죽음은 고정불변의 현상이 아닌 태어남이라는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가?
- ⑤ 올바른 생각[正思]과 지혜를 통해 죽음의 실상(實相)을 파악해야 하는가?

58[22 ebs 수완] 푸셈!

(가)	<p>갑: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분해된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감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賢者)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p> <p>을: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이성의 활동에 시카이나 그 밖의 감각을 끌어들이지 않고, 정신 자체의 밝은 빛만으로 참된 존재를 탐구하는 사람만이 그 탐구 대상을 가장 순수하게 인식하게 된다. 신체는 영혼이 진리와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re>                     graph TD                         A{A} -- 아니요 --&gt; B{B}                         B -- 예 --&gt; C{C}                         C -- 예 --&gt; D[ ]                         style D fill:none,stroke:none                     </pre>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font-size: small;">                 &lt;범례&gt;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보기

ㄱ. A: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가?  
 ㄴ. A: 인생의 악(惡)을 중지시켜 주는 죽음을 갈망해야 하는가?  
 ㄷ. B: 현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가?  
 ㄹ. C: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이데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2-2

### 생명 과학과 윤리 (수완 4강)

zola 풀이!

59[18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생물학적 조작의 전 영역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가장 엄격한 도덕적인 논거를 통해 내린 결론은 타인에 대한 모든 무책임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전적 결합의 예방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생물학적 조작의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의 후손이 자신을 산출한 자를 찾아내어 잘못을 따질 수 없고, 후손에게 대답하고 사과할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범죄 영역을 보게 된다. 점점 커지는 생물학적 기술의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행의 예방만이 허용되고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 대해 현재대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보기

- ㄱ. 현재대는 스스로 기술 권력의 위험성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 ㄴ. 현재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
- ㄷ. 현재대에 대한 미래 세대의 책임은 일방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 ㄹ. 인간에게 새로운 행복을 약속하는 생물학적 조작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한다.

- 60[14 ebs 수완, 신유형, 좋은 문제임] 갑, 을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개인의 의지의 존중을 지상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제3자는 개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어떤 간섭이나 방해는 해서는 안된다.  
 을 : 생명은 수태된 순간부터 그 자체로 소중하다. 외적인 가치의 척도에 근거해 타인의 손에 의해 제거되어서는 안되고, 생명 존중과 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만 한다.
- ① 자살은 허용해도 되는가?
  - ② 낙태는 허용해야 하는가?
  - ③ 안락사는 허용해도 되는가?
  - ④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 ⑤ 장기 매매를 적극 권장해도 되는가?

61[18 ebs 수완]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핵을 제공한 원본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 내는 인간 개체 복제는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개체 복제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을: 아님니다. 인간 개체 복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개체 복제는 복제 과정에서 인간에게 미칠 의학적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

보기

- ㄱ. 인간의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ㄴ. 복제 인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ㄷ. 복제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ㄹ. 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의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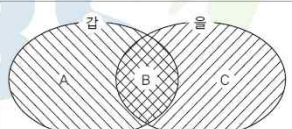
62)[17 ebs 수완] 다음은 임상 시험과 관련된 원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임상 시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은/는 어린이, 임산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어른, 그리고 죄수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된다.
2. 선행의 원칙은 해를 입히지 말 것과 가능한 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는 극소화할 것이라는 두 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익은 좋은 연구 디자인의 사용과 유능한 시험자, 그리고 적절한 위험/이익 비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 ㉡은/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요건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피험자를 선정하거나 제외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피험자 선정은 적절한 기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 설명	㉡의 설명
①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②	사회적 효용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④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63)[16 ebs 수완]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인간 배아는 잠재적 인간 존재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자궁에 착상된 이후의 인간 배아는 인간 중에 속하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실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을: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아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험 과정에서 그것이 파괴되더라도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나)  (법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인간 배아는 생성된 순간부터 온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
- ㄴ. B: 자궁에 착상되기 이전의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
- ㄷ. B: 배아에서 출생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은 연속적이므로 배아와 인간을 구분짓는 것은 옳지 않다.
- ㄹ. C: 인간 배아는 시기의 구분 없이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64)[21 ebs 수완] 제시문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격체가 스스로를 책임 있는 행위의 저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삶의 역사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자기'의 연속성을 가정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하지만 부모에 의해 우생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인격체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자신들의 고유한 삶의 역사의 유일한 저자로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출생 이전에 유전자 시술을 받은 인격체가 자신의 소질이 디자인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들의 결사체에 속하는 자율적이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생학적 프로그래밍은 미래의 인격체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① 유전적 개입으로 개인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 ② 유전적 자질의 강화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독립을 보장한다.
- ③ 프로그래밍 된 인격체는 스스로가 삶의 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 ④ 자질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생명 공학적 개입은 출생의 우연성을 강화한다.
- ⑤ 우생학적 개입은 자녀 스스로가 평등한 인격체로 간주되는 것을 촉진한다.

65)[20 ebs 수완] ㉠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복제를 허용할 경우 아이로부터 아이가 생기고 여성 아닌 남자로부터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복제 인간은 아버지의 늦은 쌍둥이인가, 나와 형제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생명 복제 기술이 일반화되면 우선 인간이 '보통 인간'과 '복제 인간'으로 나뉠 것이며, '복제 인간'은 정신노동을 하는 계급과 단순노동을 하는 계급으로 나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불안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복제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므로써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더라도 사람들은 쉽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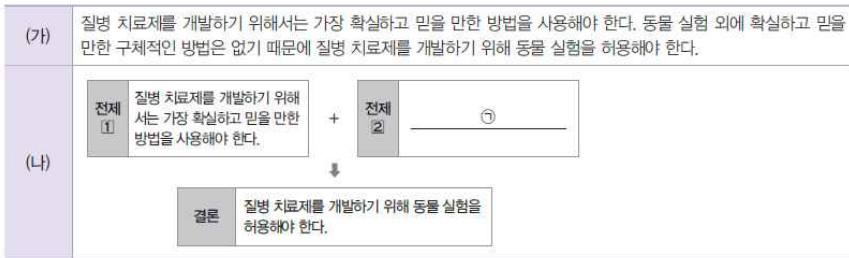
- ① 인간 복제가 다양한 가족 유형을 만들 수 있다.
- ② 인간 복제가 인간 유전 형질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
- ③ 인간 복제가 우성 형질을 가진 인간의 출생을 가로막는다.
- ④ 인간 복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얻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를 무시한다.
- ⑤ 인간 복제가 유전적 개입에 의한 계급 형성과 이로 인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66[22 ebs 수완]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전자 치료란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에게서 추출한 정상 유전자를 이식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 차원에서 해석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난치병 극복은 물론 기존 의료 방식의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전자 치료 방법은 유전자의 치료 대상에 따라 ㉠와/과 ㉡(으)로 구분된다. ㉠은/는 유전자 운반체인 바이러스를 이용해 유전 물질을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치료를 위해 주입된 유전자는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 방법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의료 원칙에 따른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은/는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의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생식 세포에 영향을 주어 변형된 유전적 정보가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유전적 형질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

- ① ㉠은 치료에 대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은 질병 치료가 목적이려면 어떠한 제한 조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 ③ ㉡은 후세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 ④ ㉡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려는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⑤ ㉠, ㉡은 선천적인 유전자 결함을 유전 공학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67[22 ebs 수완]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
- ②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차이가 있다.
- ③ 컴퓨터 모의실험과 같은 다른 확실한 대안이 존재한다.
- ④ 동물 실험은 인간의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이익을 산출한다.
- ⑤ 동물 실험 없이 안정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3

### 성과 사랑 (수완 5강)

zola 풀어!

68[21 ebs 수완] 골라.

우리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사랑은 하나의 사물,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이라는 사물은 없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뿐이다. 사랑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포한다. 그것은 그(그녀 또는 그것)를 소생시키며 그(그녀 또는 그것)의 생동감을 증대시킨다. 사랑은 소생과 생장을 낳는 과정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으로 체험되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생명감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목을 조여서 마비시키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행위이다.

- ①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서로의 사랑을 더욱 발전시킨다.
- ②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소극적 활동으로 자신만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 ④ 사랑은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서로를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 ⑤ 사랑은 인간의 본능적 활동이므로 인간은 사랑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다.

69[19 ebs 수완] 고르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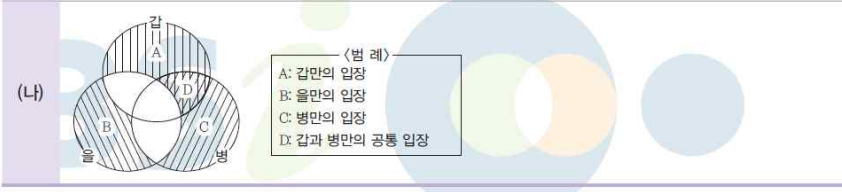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정되고 달라지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 남자는 '주체'이고 '절대'이지만 여자는 '타자(他者)'이다. 여자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 비본질적인 것이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적으로 우리의 눈에 별개의 것으로 비쳐진다 해도, 그것은 여자 아이의 본능이 그 아이를 수동성과 모성애에 어울리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그 인생의 직분을 떠맡도록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 (중략) ... 주어진 현실 세계에서 자유의 승리를 가져오느냐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녀가 서로 간의 구별을 초월해 분명한 우애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보기

- ㄱ. 여성이 남성에게 예측된 존재로 규정될 때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인식된다.
- ㄴ.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할 때 남녀 사이의 평등이 가능해진다.
- ㄷ. 여성이 지닌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각성도 필요하다.
- ㄹ. 여성은 남성과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는 정당하다.

70) [17 ebs 수완] 다 골라!

- (가) 갑: 성의 목적은 신으로부터 주어졌으며 그것은 출산이다. 그러므로 신이 부여한 출산이라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방식의 성은 모두 부도덕하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신의 섭리에 부합할 때 자신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된다.  
 을: 성은 상대방과의 진정한 합일의 상태를 향해 가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성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인격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인격의 통합성을 파괴한다. 사랑이 없는 성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것일지라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병: 성의 본질은 단지 타인의 몸에 접촉해서 발생한 쾌락일 뿐이다. 출산, 결혼, 사랑 등은 성의 외래적 가치일 뿐이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에서 한 개인의 다양한 성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 보기
- ㄱ. A: 오직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전제할 성만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ㄴ. B: 상호 간의 자발적 합의만 있다면 출산과 무관한 성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ㄷ. C: 성의 진정한 가치는 쾌락에 있으므로 사랑과 무관한 성도 도덕적일 수 있다.  
 ㄹ. D: 성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71) [18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랑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혜 있는 자와 무식한 자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두 육체로, 두 육체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아름다운 활동으로, 그다음에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학문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그 자체의 학문에 이르러 드디어 아름다운 그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을: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태도는 사랑을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에서 출발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곤 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그것은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art)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 ① 갑: 사랑은 아름다움 그 자체를 향해 나가는 활동이다.
- ② 갑: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 ③ 을: 사랑하는 능력은 후천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④ 을: 사랑을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을 때 사랑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 ⑤ 갑, 을: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요구된다.

72) [14 ebs 수완]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게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남용할 경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보기>
- ㄱ. 성의 쾌락적 가치를 감소시킨다.
  - ㄴ. 낙태와 같이 생명을 훼손하는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 ㄷ.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길 수 있다.
  - ㄹ.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으로 성행위를 제한하여 성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73) [22 ebs 수완]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식에 근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오직 다른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원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완전히 배척하는 이기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하며, 주는 데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받는 데서만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얻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외부 세계를 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 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기심과 동일한 것인가?
- ②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양립 가능한가?
- ③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가?
- ④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유용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 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발견되는가?

# 2-4

## 가족, 친구, 이웃 관계의 윤리 (수완 5강)

zola 풀이!

74[16 ebs 수완] 다음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기의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남의 노인에게 미치고, 자기의 어린아이를 사랑함으로써 남의 아이에게 미친다면 천하를 자기 손바닥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순임금은 고수의 아들인데, 순임금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다함에 고수가 기뻐하게 되었으니, 고수가 기뻐하며 천하가 교화되었으며, 고수가 안락하며 천하의 부자간은 이를 본받아 또한 안정되었다. 이것을 일러 대효(大孝)라 하는 것이다.

- ① 효제(孝悌)의 윤리는 사회 윤리와 양립할 수 없다.
- ② 효와 충(忠)이 대립할 때는 충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③ 효의 정신은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의 기반이 된다.
- ④ 지위를 얻어 이름을 떨치는 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다.
- ⑤ 가족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만민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75[15 ebs 수완] 다음 내용에서 강조하는 효의 자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셈~

- 중자가 여주었다.  
“감히 여주옵건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좇기만 하면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에게 간하는 자식이 있다면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의롭지 않은 일에 당면하면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아버이 섬길 때에는 조심스럽게 간언을 해야 한다.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공경하며 어기지 말아야 하며 힘들더라도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보기>

- 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율음을 추구해야 한다.
- 나. 육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받들어야 한다.
- 다. 부모에게 허물이 있는 경우 이를 말씀드리지 말아야 한다.
- 르. 혹시 부모님이 거둬 잘못을 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76[13 ebs 수완] 대학의 Zol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섭공: 우리 마을에 정직한 이가 있는데, 그 아버가 양을 훔치자 그 아들이 아버의 죄를 증언하였습니다.

Zola: 우리 마을의 정직한 이는 이 사람과는 다릅니다. 아버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를 위해 숨겨 줍니다. 아마 정직은 이런 가운데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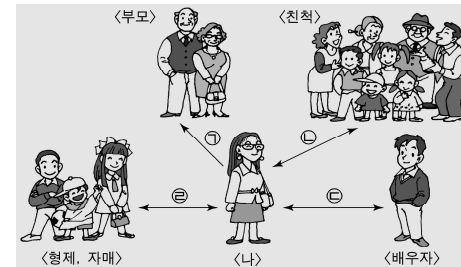
- ① 정직이 도덕의 기반이라고 본다.
- ② 공정성이 효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
- ③ 의견의 일치를 정의보다 더 중시한다.
- ④ 율음[正]은 친애의 정에 기반을 둔다고 본다.
- ⑤ 도리의 실천보다 법적 정의의 실현을 중시한다.

77[20 ebs 수완] 다음 동양 사상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집안사람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는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서도 나라의 가르침을 이룩하는 것이다. 효도는 임금을 섬기는 길이요, 공경은 어른을 섬기는 길이며, 자애는 여러 사람을 부리는 길이다.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하늘과 땅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 도를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 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 ② 인격 완성을 위한 노력은 효를 실천하는 길이다.
- ③ 효는 가정에서 인(仁)을 실천하는 주요 덕목이다.
- ④ 물질적 봉양보다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양지가 더 바람직하다.
- ⑤ 가족 관계에서의 도리를 사회·국가에서의 도리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78[평가원] ㉠~㉣ 관계에 해당되는 전통적 도덕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 ① ㉠은 인(仁)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근본으로 인식되었다.
- ② ㉡은 친소와 세대의 기준에 의해 설정되었다.
- ③ ㉢은 음양의 원리에 따라 성(性) 역할에 차이를 두었다.
- ④ ㉣은 확대되어 친구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 ⑤ ㉣은 ㉠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 ⑥ ㉠, ㉡, ㉢, ㉣의 실천은 '서(悌)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

79[17 ebs 수완]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오늘날 효는 잘 부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개와 말도 모두 잘 먹여 기르는데,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자식은 태어나서 삼 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무릇 삼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이다.
(나)	효순(孝順)의 도를 닦는 자라면 항상 현생과 과거 칠세(七世)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공양을 지어 올리도록 하라. 부모님을 위해 경(經)을 쓰고 독송하며,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삼보에 공양하며, 재계를 지켜 받들고, 보시를 해서 복을 지어라.

**보기**

- ㄱ. (가)는 진정한 봉양(奉養)은 부모에 대한 양지(養志)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 ㄴ. (나)는 효의 정당성을 윤회 사상과 보은(報恩)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ㄷ. (가)와 (나)는 인연(因緣) 사상에 근거하여 부모와 자녀를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 ㄹ. (나)는 (가)와 달리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효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80[19 ebs 수완]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문건대, 사람의 아버지[人父] 된다 함이 무엇입니까? 대답컨대, 자식에게 관대하고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아버지입니다. 문건대, 사람의 자식[人子] 된다 함이 무엇입니까? 대답컨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예를 극진히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문건대, 사람의 형[人兄] 된다 함이 무엇입니까? 대답컨대, 자비로운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며 우애를 나타낼 줄 알아야 형입니다. 문건대, 사람의 동생[人弟] 된다 함이 무엇입니까? 대답컨대, 형에게 급할 줄도 알고 공경하며, 가급적 형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동생입니다. ... (중략)... 이러한 사람의 윤리의 도(道)야말로, 한편으로 치우치면 가정과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이요, 쌍방적으로 같이 제 길을 가면 가정과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 ㄱ.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ㄴ.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ㄷ.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 사이에서의 효제의 실천은 다른 사회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 ㄹ.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은 아랫사람의 일방적 복종과 연계되는 조건부 의무이다.

81[20 ebs 수완] 문제 볼 줄 알지? 있는 대로 골라!

(가)	성인이 백성들에게 인륜을 가르치도록 하였으니 그 내용은 부자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장유 간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며, 봉우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은/는 인륜의 처음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아무리 지극히 친하고 가까워도 역시 지극히 바르게 하고 삼가야 한다. 집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그 시초부터 삼가야 하는 것이니, 천 번 만 번 경계하기를 바란다.

**보기**

- ㄱ. 촌수와 호칭을 엄격하게 따지며 서로 공경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위로는 조상을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이어야 하는 관계이다.
- ㄷ. 서로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ㄹ. 자신의 근원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서로 천륜을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82[22 ebs 수완] 알아서 고르셈!

(가)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재(君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서 할 올바른 도리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나)	천지(天地)가 있고 난 다음에 만물(萬物)이 있고, 만물이 있고 난 다음에 남녀(男女)가 있고, 남녀가 있고 난 다음에 ㉠이/가 있고, ㉡이/가 있고 난 다음에 부자(父子)가 있다.

**보기**

- ㄱ. 혈연적 관계가 없는 남녀가 결합한 것이다.
- ㄴ. 가정 속의 인간관계 중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이다.
- ㄷ. 천륜으로 맺어진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관계이다.
- ㄹ. 서로 아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수족지(手足之義)의 관계이다.

# 3-1

## 직업과 청렴의 윤리(수원 6강)

zola 풀이!

83)[18 ebs 수원]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다 골라.

곡식을 주고 술과 시루 그리고 농기구와 바꾸는 것이 도공과 대장장이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라면, 도공과 대장장이가 자신이 만든 기계와 그릇을 주고 곡식과 바꾸는 것 역시 어떻게 농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겠는가? 또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百工)들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은 마음을 쓰고 소인은 힘을 써야 한다.

- ㉠ 모든 사람은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야 한다.
-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 사회 안정을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 ㉣ 정치의 시작은 향산(恒産)보다는 항심(恒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 ㉤ 덕(德)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84)[14 ebs 수원] 다음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자애롭다. 자애롭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 \* 백성이 수령을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 일상생활을 절도 있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노래와 춤을 물리쳐야 한다. 공손하고 엄숙하기를 큰 제사를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고 감히 놓고 즐기다가 다스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 <보기>

- ㄱ. 백성들이 통치자가 되도록 가르친다.
- ㄴ. 백성들을 수기(修己)에 기초하여 다스린다.
- ㄷ. 백성의 의사를 실현하는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다.
- ㄹ. 백성에게 세금을 덜 걷기 위해 절용(節用)해야 한다.

85)[17 ebs 수원] 골라!

소외란 인간이 만든 노동 생산물이 생산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되어 인간에게 낯선 존재, 대립적인 존재가 되고 나아가 이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해 종속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소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생산한 물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노동 소외를 겪게 된다. 노동이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 보기**
- ㄱ.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ㄴ. 노동자는 사회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 ㄷ. 노동은 외부의 억압이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ㄹ.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86)[15 ebs 수원] 동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갑: 대체 선비가 높고 먹는 까닭으로 땅에서 나오는 이(利)가 다 개척되지 않고 있는 바, 놀아서는 곡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선비 또한 농사꾼으로 변할 것이다. 선비가 농사꾼으로 변하면 풍속이 순후(淳厚)하여지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백성이 없어질 것이다.
- 을: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신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보기>

- ㄱ. 갑은 양반들도 상황에 따라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ㄴ. 을은 소명에 충실한 삶을 통해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
- ㄷ. 갑은 직업 생활을 통한 물질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고, 을은 부정한다.
- ㄹ. 갑, 을은 직업이 신분에 따라 정해지므로 바꿀 수 없다고 본다.

87)[19 ebs 수원] 표는 어느 서양 사상가를 상대로 한 가상 설문 조사 결과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골라.

	질문	응답	
		예	아니요
(1)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인간의 본질 실현을 어렵게 하는가?	√	
(3)	㉠	√	
(4)	㉡		√

**보기**

- ㄱ. ㉠: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술적 분업이 강조되는가?
- ㄴ.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저해하는가?
- ㄷ. ㉡: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생산 노동은 불필요한가?
- ㄹ.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화된 노동은 인간 소외를 심화시키는가?

88)[14 ebs 수원] 다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현세에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낮 동안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한다. 태만과 향락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한 행위만이 분명하게 계시된 신의 뜻에 따라 신의 영광을 더하는 데 봉사한다.

<보기>

- ㄱ. 금욕적 삶을 통한 부의 축적은 정당하다.
- ㄴ. 노동은 오직 신에 대한 속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 ㄷ. 직업 노동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 ㄹ.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는 것이 직업의 최대 목표이다.

89[21 ebs 수완] 어떻게 푸는지 알지? 풀어!

(가) 갑: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명분(名分)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흥성하지 않고, 예악이 흥성하지 않으면 형벌이 사리에 맞지 않고, 형벌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을: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이 각각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전념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계층에 적합한 덕목을 실천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

(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보기

- ㄱ. A: 덕에 기반을 둔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인가?
- ㄴ. B: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사회의 모든 직분에서 자신의 덕을 발휘해야 하는가?
- ㄷ. C: 각 계층이 서로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되는가?
- ㄹ. C: 통치자들은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만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90[22 ebs 수완] 어떻게 푸는지 알지? 풀어!

(가) 갑: 정의로운 나라는 각자의 고유한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이고,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가 있는 나라이다. 완벽하게 훌륭한 나라는 통치자와 방위자, 생산자의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나라'를 수립하는 것이다.

을: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해진다[天下爲公]. 덕(德)과 재능이 있는 자를 뽑아 정치를 맡겨 믿음을 가르치고 화목함을 닦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직분이 있게 되고 재물은 낭비되지 않는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통치자 이외의 계층은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 ㄴ. B: 통치자는 자신의 덕을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ㄷ. B: 정의로운 사회의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ㄹ. C: 정의로운 사회의 일부 계층은 공유제의 원칙에 따라 규제받는다.

# 3-3

## 사회 윤리[니부어] (수완 7강)

zola 풀어!

91[15 ebs 수완] 있는 대로 골라!

(가) 인간 집단은 도덕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순수한 무욕(無慾)의 도덕을 집단에서 찾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어떤 사회 집단도 순수한 사랑의 영향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병행되어야만 이러한 견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나)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판단 결과

보기

- ㄱ. A : 사회 불의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가?
- ㄴ. A :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심화되는가?
- ㄷ. B :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은 이성적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한가?
- ㄹ. B : 집단 안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가?

92[14 ebs 수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 ①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탁월하다.
- ② 구성원들이 도덕적이면 사회는 당연히 도덕적이다.
- ③ 집단에 속한 개인의 도덕성 함양 노력은 무의미하다.
- ④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⑤ 개인의 양심과 선한 의지만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93)[18 ebs 수완] 골라!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다. 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심이 하나의 공동체 총동으로 나타날 때 이를 억제할 강력한 사회적 힘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 선의지의 함양만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고 집단 간의 조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 고 생각한다.

보기

- ㄱ. 집단 간 대화를 통해서만 집단 간의 사회적 조화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ㄴ. 인간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강제력이 꼭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ㄷ.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 문제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 ㄹ. 부정의로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항하는 힘이 형성되어야 정의 실현이 가능함을 간과하고 있다

94)[17 ebs 수완]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지지할 진술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사회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자연적 혹은 문화적 산물들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말미암아 정의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반항, 강제력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 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진술	학생				
	갑	을	병	정	무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은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	V			V	V
개인의 이기적 총동은 집단 속에서 보다 증폭되어 나타난다.		V	V	V	V
개인의 이기심은 이성과 양심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있다.		V		V	
사회 집단의 구조는 개인 행위의 도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		V		V

95)[15 ebs 수완 변형] 다음 사상이 긍정할 내용을 있는 대로 골라!

도덕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들의 관계로 옮겨가면 갈수록 이기적 총동이 득세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내면적 억제도 이기적 총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기>

- ㄱ. 인간의 이기심은 사회 갈등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 ㄴ. 집단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적 강제력이 요청된다.
- ㄷ. 이성은 개인의 욕망을 제한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ㄹ.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단의 활용이 사회 정의 실현에 효과적이다.
- ㅁ.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동일하다.
- ㅂ. 사회 구조는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96)[15 ebs 수완] 있는 대로 골라!

-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총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보기>

- ㄱ.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힘의 비율에 의해 수립된다.
- ㄴ. 정치적 강제력은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뿐이다.
- ㄷ.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합리적인 수단은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ㄹ.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개인의 도덕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7)[19 ebs 수완] 다음 사상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골라.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들을 모두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보기

- ㄱ. 합리성의 발전이나 선의지의 함양만으로 집단의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 ㄴ. 사회 정의 실현은 부정의로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항하는 힘이 형성되어야 가능한가?
- ㄷ.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정치적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가?
- ㄹ. 합리적인 사회는 강제력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두는가?

98)[21 ebs 수완] 옳은 것을 다 골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큰 사회 집단들, 즉 공동체, 계급, 인종, 민족 등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정과 자기 확대의 이중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충분히 진행된다. 애국심이란 더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 충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전망에서 보면 한 가지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 ①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애국심이 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하기도 한다.
- ③ 집단의 이기심은 타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는 견제될 수 없다.
- ④ 집단은 개인에 비해 총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⑤ 집단에 대한 충성은 승화된 이기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99)[20 ebs 수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됨!

개인과 사회 집단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사랑의 정신은 점차 그 연약성을 드러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속한 개인들은 순수한 자애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국가의 개인들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의지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나타낸다.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그 활동에서 순수하게 이타적일 수 없다.

**보기**

- ㄱ.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 ㄴ. 자애심이 큰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일지라도 국가 간 대립은 피할 수 없다.
- ㄷ. 국가에 대한 맹목적 애국심이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ㄹ. 개인의 양심과 집단의 이기성 간의 갈등은 지속되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100)[22 ebs 수완] 있는 대로 고르세요

- 도덕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들의 관계로 옮겨 가면 갈수록 이기적 충동은 사회적 충동을 누르고 득세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내면적 억제도 이기적 충동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억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억제는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제국주의 형태이든 계급 지배의 형태이든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양심과 이성이 그 투쟁에 끼어들더라도 집단적 힘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못한다.

**보기**

- ㄱ. 사회는 집단의 이기심 억제를 위해 사회적 갈등과 폭력도 승인할 수 있다.
- ㄴ. 정의를 실현하려는 비합리적 수단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ㄷ. 사회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이기심이 아닌 양심과 이타심에 두어야 한다.
- ㄹ. 사회적 분쟁의 완전한 제거는 강제력보다 합리적 설득을 통해 성취해야 한다.

101)[22 ebs 수완] 특이한 사상이 조합의 문제이지만 기본 지식으로 쉽게 풀림.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은 전체적인 인간 집단에서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집단은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해지며, 어떠한 사회적 제제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다.  
 을: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을 인격으로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존 생존 조건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생존 조건이기도 한 노동 양식을 지양해야만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인격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

- ① 갑이 을에게: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폭력 혁명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② 갑이 을에게: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에 따른 분배가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③ 갑이 을에게: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능력에 따른 노동이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④ 을이 갑에게: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선의지 실천이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⑤ 을이 갑에게: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사적인 소유 철폐가 필수적이지 않음을 간과한다.

# 3-4~3-5

## 분배 정의 (수완 7강)

### zola 풀이!

102)[13 ebs 수특 응용]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가지 정의이다.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가) 서로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 (나)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손실이 균등해지도록 해야 한다.

#### <보기>

- ㄱ. (가)는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재화를 분배한다.
- ㄴ. (가)는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ㄷ. (가)는 업적에 비례하는 분배를, (나)는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한 교정을 정의로 간주한다.
- ㄹ. (나)는 산술적 균등을 회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다.

103)[18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중 분배처의 임무는 과세와 재산권의 조정을 통해 분배의 료에 있어서의 정의를 유지하는 일이다. 분배처는 먼저 부의 분배를 바로잡고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공정한 기회균등 등을 해치는 힘의 집중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여하고 유산권에 제한을 가한다. 그리고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제공과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양도액의 지불을 위해 조세 체계를 수립한다.

#### 보기

- ㄱ.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막아야 하는가?
- ㄴ. 공공선 실현의 기반이 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 조치가 필요한가?
- ㄷ.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해야 하는가?
- ㄹ. 시장을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국가는 재화 분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가?

104)[22 ebs 수완] 고르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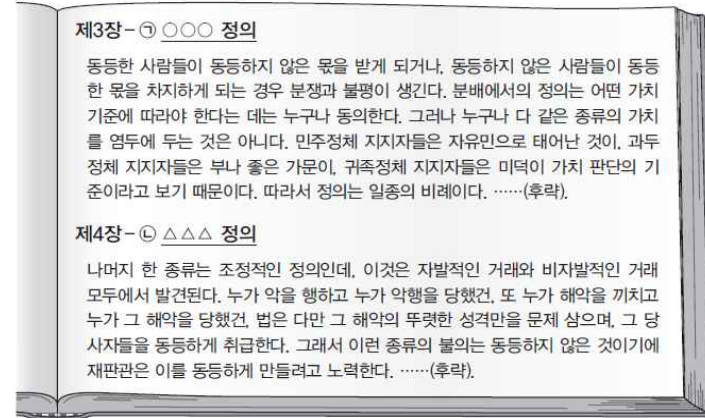
갑: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분배적 정의론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을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을: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 보기

- ㄱ. 갑: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가치는 역사적·문화적인 필연성의 산물이다.
- ㄴ. 갑: 사회적 가치 중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지배적 가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 ㄷ. 을: 사회적 가치는 불평등한 분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ㄹ. 갑, 을: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이념은 가상의 사고 실험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105)[19 ebs 수완]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 보기

- ㄱ. ㉠: 재화의 올바른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에 근거해야 한다.
- ㄴ. ㉠: 각자의 가치와 관계없이 명예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옳바르다.
- ㄷ. ㉡: 자발적 거래에서 올바른 것이란 일종의 이익과 손해의 중간이다.
- ㄹ. ㉠, ㉡: 정의로운 것은 동등함이고, 부정직한 것은 동등하지 않음이다.

106)[19 ebs 수완] 골라봐~

갑: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일 것이다. 한 분배는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을 경우 정의롭다.

(가) 을: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병: 분배에서 옳음은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옳음은 일종의 비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례는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하며 기하학적 비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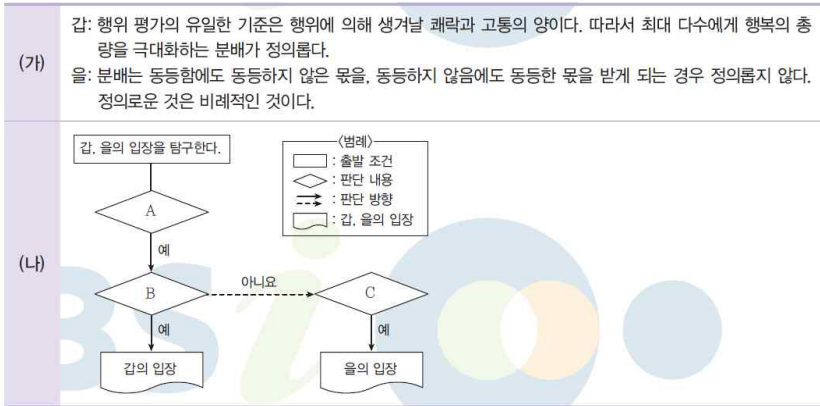
#### 보기

- ㄱ. A: 최소 국가 이상의 포괄적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ㄴ. B: 타고난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 ㄷ. C: 동등하지 못한 사람이 동등한 몫을 받는 경우도 분배적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 ㄹ.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에 있어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107[13 ebs 수완]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반성적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속고한 판단들이 보여주는 도덕감에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도덕감이 우리의 사고와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은 행위론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유사한 현실적 상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받아들여지게 될 원칙들이 우리의 도덕적 추론과 행위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 ① ㉠은 결과가 공정하면 절차는 상관없다고 간주한다.
  - ② ㉡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을 주장한다.
  - ③ ㉡은 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이다.
  - ④ ㉠에 처한 개인들은 타인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이타적인 존재이다.
  - ⑤ ㉠에 처한 개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108[17 ebs 수완]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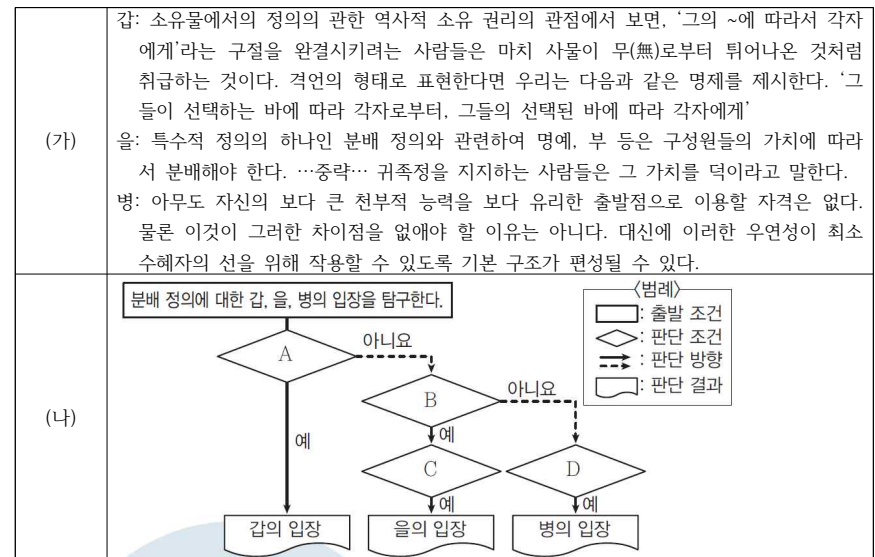
- <보기>
- ㄱ. A: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분배만이 정의로운가?
  - ㄴ. B: 공동체의 선은 개인선의 총합으로 보아야 하는가?
  - ㄷ. C: 각자의 가치에 따른 재화의 분배는 정의로운가?
  - ㄹ. C: 개인선의 추구는 공동선의 침해로 이어질 뿐인가?

109[14 ebs 수완 활용] 갑, 을 사상가가 각 질문에 긍정 또는 부정할 지 확인하시오.

갑 : 사회의 기본적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자존감 등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을 :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n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시간 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질문	갑	을
①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위임해야 하는가?		
② 개인의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하고 분배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가?		
④ 소득과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⑤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는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하는가?		

110[16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 <보기>
- ㄱ. A :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가?
  - ㄴ. B : 절대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 ㄷ. C : 공적이 큰 사람이 더 많은 부를 분배받아야 하는가?
  - ㄹ. D : 자연적 우연성을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는가?

111)[18 ebs 수완] 골라!

갑: 확대 국가를 옹호하는 분배적 정의론은 분배를 위한 재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개인이 정당한 소유 자격을 갖는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들의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자격이 사회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을: 입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정의의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재화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여기로 약속한다.

**보기**

- ㄱ. 갑: 경제적 불평등 시정을 위해 소유권의 절대적 보장이 필요하다.
- ㄴ. 갑: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갖는 확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 ㄷ. 을: 개인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여 얻은 이익을 개인의 몫으로만 볼 수 없다.
- ㄹ. 을: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이타적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

112)[16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p>갑: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연적 능력은 누구에게도 응분의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 우연성들이 가장 불우한 자들의 선(善)을 위해 작용하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를 짜야 한다.</p> <p>을: 강압·절도·사기로부터 보호, 계약 집행이라는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이러한 국가는 소유 권리를 보장하여 우리의 창의성을 고취시킬 것이다.</p> <p>병: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p>
(나)	

<보기>

- ㄱ. A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 ㄴ. B :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로운가?
- ㄷ. C :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 ㄹ. D : 모든 사람에게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인가?

113)[17 ebs 수완] 그림은 노트 필기 내용이다. ㉠~㉢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사상가의 정의론>

1. 인간관: 인간은 합리적 이성에 의해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2. 정의 원칙
  - 1) ㉠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 2) ㉡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 ㉢ 어느 누구도 1)과 2)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3. 의약 ... (허락)...

- ① ㉠에 의하면 개인의 소유 권리는 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한 상태에서만 정당화된다.
- ② ㉠에 의하면 개인은 정당하게 얻은 자신의 재화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③ ㉡에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 ④ ㉢에 의하면 개인은 정당한 양도의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한 절대권을 지닌다.
- ⑤ ㉢에 의하면 사기나 강요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114)[16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도박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된 공정한 내기란 이득에 대한 0의 기댓값을 갖는 내기이며, 그 내기가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것이다.

- ① 정의의 원칙은 합리적 인간들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가?
- ②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는 항상 공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 ③ 정의의 원리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는가?
- ④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은 공익 증진을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⑤ 정의의 원칙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해야 하는가?

115[17 ebs 수완, 윤사] 골라!

분배적 정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구 또는 기관이 물건들을 나누는 데 일정한 기준 또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 분배, 즉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한 사람이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재화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 행위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의가 발생했다면 소유물의 분배 결과는 교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취득과 양도에서의 정의의 원칙' 또는 '교정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 ㄱ.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유, 생명, 재산에 대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 ㄴ. 분배적 정의는 중앙 정부가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된다.
- ㄷ. 사회 구성원들은 노동으로 얻은 산물 중 일부를 타인들과 나누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ㄹ. 국가의 역할은 개인이 가진 권리와 재산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국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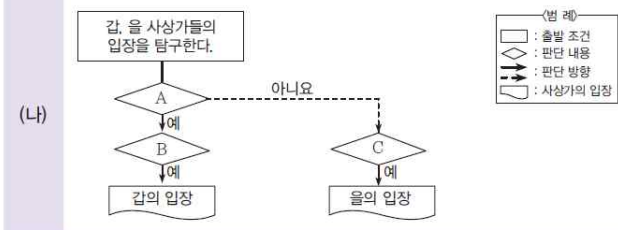
116[17 ebs 수완, 윤사]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평등은 우리가 우리끼리 함께 만들고 공유하며 나누는 가치들에 의해 매개되는 인격체들 간의 다원적인 관계이다. 평등은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은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가들이 정치 영역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나 다른 가치들을 얻기 위해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권력을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질문	대답
①	정의의 영역들 간의 경계들은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아니오
②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하는 여러 가지 분배 원칙들이 필요한가?	아니오
③	정의의 문제는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과 필연적으로 연관되는가?	예
④	사유 재산이 폐지되고 사회적 가치들이 공유되면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가?	예
⑤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정의 원칙만이 정당성을 가지는가?	예

117[17-수능, 윤사(ebs에 실려 있는 윤사 기출임)] 골라.

(가) 갑: 정의는 자신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을: 정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최초의 취득과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분배는 정의롭다.



보기

- ㄱ. A: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 ㄴ. B: 약자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한가?
- ㄷ. B: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 ㄹ. C: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18[18 ebs 수완, 윤사] 골라

공직에 있어서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불평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X에게 그의 공직으로 인해 다른 영역들에서의 혜택, 예를 들면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의 취학 우선권, 취업 기회 제공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 ① 정의의 각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 ② 모든 사회적 가치의 분배 기준과 원칙을 통일해야 한다.
- ③ 가치 분배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④ 가상적 상황에서 공정한 합의에 의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
- ⑤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소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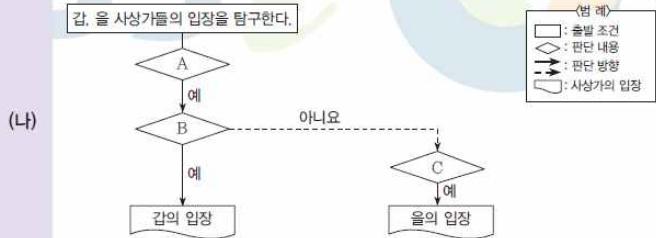
119)[17 ebs 수완, 윤사]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사회적 재화 및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영역별로 적절한 분배 기준이 존재한다. 가치의 사회적 의미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에는 공동체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공정하게 분배하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절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 정의의 각 영역별로 그 영역에 고유한 분배 원칙이 있어야 함을 간과한다
- ㉡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부와 소득이 결과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 ㉣ 사회적 맥락 차이를 고려하여 재화의 의미와 가치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 ㉤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120)[18 ebs 수완, 윤사] 골라

(가) 갑: 정부가 누진율로 상속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재산권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제도와 그것이 규정하는 권리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비례적인 소비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확립 등을 위한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을: 정부가 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n 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 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장이 황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모든 개인들에게 공정한 자들을 위해 매주 5시간씩 추가로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다.



- ㉠ A: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해야 하는가?
- ㉡ A: 개인이 지닌 기본적인 자유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 ㉢ B: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허용해야 하는가?
- ㉣ B: 사회적 불평등이 모두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 ㉤ C: 국가는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가?

121)[올해 ebs 수완, 윤사] 골라. (윤사라도 답은 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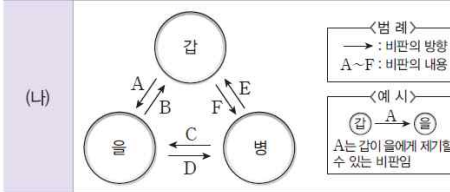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 사회를 바라볼 때,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일생에 대한 전망에서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기에 적절한 정의의 원칙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일차적 관심사는 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다. 우리는 이 불평등을 규제할 원칙을 찾기 위해 평등한 기본적인 권리들과 자유들,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와 공정한 기회균등에 대한 우리의 가장 확고하고 숙고된 신념들을 고려한다.

보기

- ㄱ. 기회균등의 원칙은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적용해야 한다.
- ㄴ. 이상 사회일지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 ㄷ. 정의의 제1원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 ㄹ. 원초적 입장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사회를 규제해야 한다.

122)[22 ebs 수완] 고르셈

(가) 갑: 분배적 정의의 두 원리, 즉 취득과 양도의 원리는 최소 국가보다 포괄적인 국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분배적 정의에 기초한 어떤 논변도 이보다 포괄적인 국가를 옹호하지 않는다.  
 을: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며,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 적절한 체제의 배경적 제도가 없이는 분배적 과정의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다.  
 병: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와 관련된다. 그것은 안전과 복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돈과 상품, 종교적 은총, 정치권력 등 영역에 따라 정의의 기준도 달라야 한다.



- ㉠ A: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친 합의는 그 자체로서 옳음을 간과한다.
- ㉡ B, E: 재분배의 원칙이 분배 주체의 소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 C: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서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의 고려가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 D: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이 분배적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F: 취득 또는 이전을 통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3-7

## 교정적 정의(형벌, 사형제)(수완 7강)

### zola 문제

- 123[zola] 아래 내용 중 베카리아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1개 이상)
- ①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 ②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③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형벌도 그 본질상 부정의한 것이다.
  - ④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 ⑤ 사형은 사회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⑥ 사형을 규정하는 법률은 스스로가 살인을 범하는 셈이다.
  - ⑦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다.
  - ⑧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 ⑨ 사형은 그 어떠한 권리에도 의거하지 않는다.

124[15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사법적 처벌은 시민 사회와 관련된 선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p> <p>을: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그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파괴하였으므로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선언이다.</p> <p>병: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이기 때문에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p>
(나)	

- <보기>
- A: 국가는 사형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 B: 계약론에 근거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 C: 사형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는가?
  - D: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125[16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처벌에서의 형량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처벌은 규칙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도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p> <p>을: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p> <p>병: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는 세상에 없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며 처벌의 효과도 종신 노역형에 비해 훨씬 적다.</p>
(나)	

<보기>

- A: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사형은 그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 B: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C: 형벌은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 D: 유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사형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6[18 ebs 수완] 그림은 어느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저자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은 고통을 주므로 악이지만 필요한 것이다.
- ② 형벌은 범죄로 인한 해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지해야 한다.
- ③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어야 한다.
- ④ 형벌은 범죄를 결심한 자로 하여금 큰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 ⑤ 형벌로 인해 범죄자가 겪는 고통의 크기는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127)[19 ebs 수완]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달리 말하면 폐해를 없애고자 한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폐해이다.

<보기>

- ㄱ. 처벌의 직접적인 목적인 위법 행위를 통제하는 것인가?
- ㄴ. 처벌의 실효성 유무가 처벌의 채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ㄷ. 처벌이 덜 해로운 위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에 부적합한가?
- ㄹ. 처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 행위로부터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해야 하는가?

128)[20 ebs 수완] 적절한 것을 고르셈!

(가) 갑: 살인범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범죄자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 준다.  
 을: 살인범의 비참한 상태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병: 살인범은 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국가의 보존과 그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다. 사형을 당할 때 살인범은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나)

- ① A: 사형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능가하는 형벌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 ② B: 사적 판단을 통한 응보의 실현도 정당한 형벌이 됨을 간과한다.
- ③ C: 사형 제도가 사회 계약에 의한 구성원의 생명 보호 수단임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에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E: 사형이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형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29)[22 ebs 수완] 옳은 것은?

갑: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령했거나, 또는 그것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이고 선형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공적 정의 앞에서 살인자에 대한 죄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을: 형벌은 근거가 없는 경우, 즉 형벌로 방지할 해악이 없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 형벌이 유익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형벌은 범법자가 범법 행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억제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 개별 위법 행위에 맞춰져야 한다.

- ① 갑: 형벌의 근거는 형벌의 의욕이 아닌 형벌을 받을 행위의 의욕에 있다.
- ② 을: 형벌이 산출하는 해악은 형벌로 방지할 해악보다 항상 더 커야 한다.
- ③ 을: 사형은 범죄와의 동등성에 근거하고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한다.
- ④ 갑, 을: 형벌은 응보적 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사회 계약과 무관하다.
- ⑤ 갑, 을: 형벌은 범죄자의 생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동정심을 반영해야 한다.

130)[22 ebs 수완] 갑, 을 사상가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고르셈.

갑: 형벌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형벌은 악이며,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 인정된다. 형벌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형벌은 해악을 줄여야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작용해야 한다.  
 을: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다. 형벌은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일반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사형과 달리 종신 노역형은 단지 한 명의 범죄자만 있어도 그를 통해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 보기 」

- ㄱ. 형벌은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가?
- ㄴ.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를 적용한 정당한 형벌인가?
- ㄷ. 형벌에는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 행동의 동인(動因)을 적용해야 하는가?
- ㄹ. 형벌 효과의 지속성보다 강렬한 인상을 위해 종신 노역형이 필요한가?



131)[22 ebs 수완] 옳지 않은 것은?

-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모든 훌륭한 입법은 가능한 행복의 극대화와 가능한 불행의 극소화를 이끌어 내는 기술과 관련된다.
- 공리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법률에서 오류와 부정의를 낳는다. 입법자의 공리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일반적 불편보다 특수한 불편을 앞세우고,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신 명령한다. 형벌은 인간의 정신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공리성을 실현해야 한다.

- ① 형벌은 문서로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며 범죄와의 비례를 반영해야 한다.
- ② 형벌은 범죄자의 침탈로부터 공공의 자유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 ③ 사형은 범죄자가 오직 살인을 했다는 사실에만 근거해 집행되어야 한다.
- ④ 입법의 근본 목적을 범죄의 처벌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 ⑤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에 대해 저지르는 폭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 3-8

## 국가와 시민의 윤리 1 (수완 8강)

zola 풀이!

132)[18 ebs 수완]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는 자연의 피조물이며, 또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임이 명백하다.
-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상위의 것이며 또한 나머지 공동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 또는 정치적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선 또는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 정치학 분야에서 선은 정의이며, 정의는 공의, 즉 시민의 행복 증진에 있다.

- ① 국가는 자연 발생적인 최상위의 공동체이다.
- ② 국가 속에서 개인선과 공동선은 양립할 수 없다.
- ③ 국가는 가정이나 마을보다 고귀한 선을 추구한다.
- ④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과 다른 공동체보다 우선한다.
- ⑤ 국가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시민의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133)[17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진술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를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개인이 정부의 통치권 안에 있는 어느 것을 소유하거나 향유하건 간에, 그는 그 행위에 의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그것들을 향유하는 동안에는 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정부의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준법의 의무는 개인의 권리와 상호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V			V	V
준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V	V		V	
정당하지 않은 정부가 정의롭지 않은 통치를 할지라도 국민은 복종해야 한다.				V	V	V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법에 복종하겠다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V	V		V

134)[19 ebs 수완] 골라.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입법부를 선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진 재산의 보호 수단이자 울타리로서, 그 사회의 각 구성원이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데 있다. ... (중략) ... 입법부가 야심,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 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たく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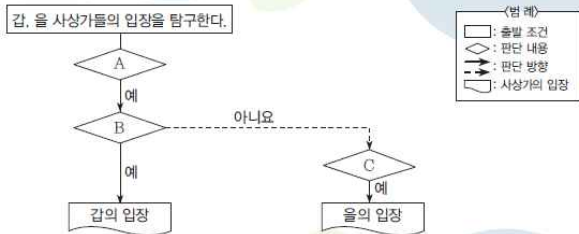
**보기**

- ㄱ. 인민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지닌다.
- ㄴ. 국가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구성된다.
- ㄷ. 정치적 의무는 자연적 의무로부터 도출되므로 인민의 동의 없이도 성립 가능하다.
- ㄹ. 입법자들이 인민을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인민의 정치적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135)[18 ebs 수완, 윤사] 골라!

갑: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체의 최종적인 형태이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단체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결사체처럼 자연의 사물들 중 하나이며, 인간은 본성상 국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을: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할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善)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 ① A: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가?
- ② B: 국가는 구성원들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음으로써 형성되는가?
- ③ B: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하는가?
- ④ C: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구성원들 간의 계약에서 비롯되는가?
- ⑤ C: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국익의 실현인가?

136)[18 ebs 수완, 윤사] 동양 사상이 갑, 한국 사상이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갑: 순임금을 시켜서 제사를 맡아보게 하였더니 모든 신(神)이 받으시니 그것은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를 시켜서 나라일을 맡아보게 하였더니 나라가 잘 다스려져서 백성들이 따르게 되니, 그것은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천하를 주시고 백성들이 천하를 준 것이니, 천자라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을: 하늘이 천자를 비취림 내리어 주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샘처럼 솟아나서 천자가 되겠는가? 여러 현장(懸長)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제후가 되며, 여러 제후가 함께 추대한 자가 천자가 되는 것이니, 천자는 백성이 추대하여 된 것이다. 무릇 백성이 추대해서 천자가 되거니와 백성이 추대하지 않으면 천자가 될 수 없다.

- ① 군주는 인의(仁義)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 ② 군주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가?
- ③ 군주가 백성의 뜻을 무시하고 통치하면 교체될 수 있는가?
- ④ 군주는 하늘과 백성의 뜻에 따라 민생(民生)을 안정시켜야 하는가?
- ⑤ 군주는 백성을 통치의 수혜자가 아닌 통치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가?

137)[올해 ebs 수완, 윤사] 틀린 것은? (답은 구할 수 있음)

갑: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에 분명하다.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일 것이다. 인간은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덕을 갖추지 않으면 불경하고 야만적이 된다. 또한 법과 정의를 이탈하면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된다. 그래서 정의는 국가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로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준다.

을: 국가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이 인격체를 이끌고 있는 이가 통치자이며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그의 신민이라고 부른다. 통치자의 권력은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강해야 한다. 이 무한한 권력으로 인해 많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결과, 즉 만민에 대한 만민의 끊임없는 투쟁 상태가 훨씬 더 나쁘다.

- ① 갑은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정의로운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② 갑은 개인이 덕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덕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게 태어난 개인이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개인의 자발적인 계약에서 비롯된 통치자의 통치 권력은 분할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구성원들이 자연 상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가를 인위적으로 구성한다고 본다.

138)[20 ebs 수완]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줘.

국가 안의 세 계층이 각기 그 자신의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는 정의로워진다. 또한 철학자들이 나라의 군주로서 다스리거나 현재의 군주 또는 최고 권력자들로 불리는 이들이 진실로 충분히 지혜를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 지혜는 분별, 즉 헤아림이며, 분별은 일종의 지혜이다. 이러한 지혜는 나라의 부분적인 것들 중의 어떤 것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와 관련해서 이 나라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보기**

- ㄱ.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이다.
- ㄴ. 통치자가 충분히 철학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해악은 종식되지 않는다.
- ㄷ. 통치자는 각 계층 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민주 정치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 ㄹ. 통치자는 이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과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139)[19 ebs 수완] 골라.

갑: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  
 을: 어떤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오직 정부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에 근거한다.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정부에 저항하는 데 반감을 느낀다.

**보기**

- ㄱ. 갑: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ㄴ. 갑: 정치적 의무는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성립 가능하다.
- ㄷ. 을: 정치적 의무는 국가가 주는 이익이 없어져도 유효하다.
- ㄹ. 갑, 을: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권위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140)[20 ebs 수완] 옳지 않은 것은?

갑: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는 본성상 개인과 가정에 우선한다.  
 을: 국가는 단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들의 고안물이다. 폭군이 이러한 이익을 사라지게 하는 곳에서는 복종의 자연적 의무도 사라진다. 인간들은 오직 공공의 이익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사례에서처럼 이익이 현저한 정도로 중단될 때마다 국가에 대한 복종의 책임도 중단된다.

- ① 갑은 국가가 구성원의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국가 공동체가 개인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전제 정치가 극심한 곳에서는 복종의 책임도 줄어든다고 본다.
- ④ 을은 국가로부터 얻는 혜택이 국가에 대한 복종의 근원적 동기가 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141)[20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거느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권병(權柄)뿐이다. 두 가지 권병이란 형(刑)과 덕(德)이다. 벌을 내려 죽이는 것이 형이고, 칭찬하여 상을 주는 것이 덕이다. 신하된 자는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 받는 것을 좋아하여, 군주가 직접 형을 집행하고 덕을 베풀면 모든 신하들은 군주의 위엄을 두려워하며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  
 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서로를 겸하여 사랑하고[兼相愛] 서로 이익을 나누므로[交相利] 상을 얻는다. 하늘의 뜻에 거슬리는 자는 서로 구별하여 미워하며, 서로 해치므로 반드시 벌을 받는다. 천하의 모든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 ① 갑: 군주는 백성의 선한 본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법으로써 다스려야 한다.
- ② 갑: 군주가 덕을 베풀어 신하의 죄를 덮어 주어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
- ③ 을: 군주는 자국을 돌보듯 타국을 돌보는 것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을: 군주는 덕이 아닌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야 한다.
- ⑤ 갑, 을: 군주는 무차별적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나누도록 통치해야 한다.

142)[20 ebs 수완]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B)에 대해 제시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동의를 통해 인정된 법률이 없으며,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다. 또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권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연 상태의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들어가려고 서두른다.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독자적 처벌권을 포기하고 그것이 그들 중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사되도록 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회 그 자체는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 양자의 본래 권리와 기원을 볼 수 있게 된다.

(나)

	(A)	(B)		
		(C)		

[가로 열쇠]  
 (A):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  
 (C):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세로 열쇠]  
 (B): ..... 개념

- ① 권력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② 자연 상태에 비해 개인의 신체와 소유물의 보존을 어렵게 만든다.
- ③ 개인들의 자발적인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
- ④ 개인이 가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할 때 형성된다.
- ⑤ 계약의 결과 인민들이 지니고 있던 저항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143)[20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공동의 권력을 확립하는 길은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며, 이를 통해 '지상의 신'이 탄생한다. 이 지상의 신은 모든 개인이 부여한 권한으로 힘과 권력을 통해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든다.

**을:** 공동의 힘을 다해 각 회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에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 형식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 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 문제이다. 사회 계약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보기**

- ㄱ. 갑: 개인은 계약을 통해 군주에게 자신의 생명 보존의 권리까지 양도해야 한다.
- ㄴ. 을: 각 개인은 다른 성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결국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다.
- ㄷ. 을: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는 절대적 속성을 지닌다.
- ㄹ. 갑, 을: 사회 계약으로 형성된 국가는 시민들에게 평화와 안전 및 질서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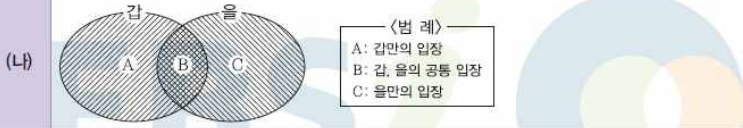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4)[21 ebs 수특, 윤사]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천하는 하늘과 백성이 주는 것이다. 요임금이 순을 시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모든 신들이 이를 받아들였으니, 이는 하늘이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를 시켜 나랏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나랏일이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이를 편안하게 여겼으니, 이는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을:** 정치 공동체는 재산을 보존할 권력 그리고 이를 위해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권력이 없다면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 각 구성원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권을 포기하고 법에 따라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준에 권력을 양도한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보기**

- ㄱ. A: 국가의 구성원은 통치의 근본이 아니라 시혜의 대상일 뿐이다.
- ㄴ. B: 통치 권력은 구성원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
- ㄷ. B: 통치 권력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못할 때는 교체될 수 있다.
- ㄹ. C: 정치 공동체는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만들어진 인공물이다.

145)[22 ebs 수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이다. 만인이 만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며, 이렇게 세워진 하나의 인격은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지닌다.

**을:** 사회 계약은 구성된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구성된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두며, 그 순간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의 집합적인 법인체가 형성된다.

- ① 갑은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고 있는 자연 상태에 부정의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국가 속에서 인민은 예측에서 벗어나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민이 아닌 통치 권력을 지닌 자가 주권자가 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입법권은 통치자가 아닌 오직 인민에게 속해 있는 권리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146)[22 ebs 수완] 골라.

**갑:** 하늘의 뜻은 백성을 통하여 나타난다. 군주가 덕행(德行)으로 정사(政事)를 주관하니 정사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니 이는 백성이 군주를 받아들인 것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이런 까닭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된다.

**을:** 하늘의 뜻은 모두를 아울러 사랑해[兼愛] 서로 이롭게[交利] 해 주는 것이다. 사회의 혼란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에 있으니, 군주는 하늘의 뜻에 따라 남의 나라를 위하기를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천하가 모두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곧 다스려지고, 모두가 미워하면 곧 어지러워진다.

**보기**

- ㄱ. 갑: 통치자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백성을 위한 다스림을 펼쳐야 한다.
- ㄴ. 갑: 통치자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림으로써 인륜(人倫)을 실현해야 한다.
- ㄷ. 을: 통치자가 자국 백성과 타국 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혼란의 원인이다.
- ㄹ. 갑, 을: 통치자가 하늘의 명[天命]에 따라 다스릴 때 백성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

# 3-9

## 시민 불복종 (수완 8강)

zola 풀어!

147)[16 ebs 수완]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문제 : 시민 불복종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이란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할 최후의 저항 수단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기존의 법이 보다 상위의 근본 원칙인 정의를 위배할 때 일어나야 하며, 정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과 처벌 감수의 부분에 있어서 까지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을 : 합의된 정의관 안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정의관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정의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민주적으로 소화되지 못할 때는 '불법'까지도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약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가치는 내팽겨쳐진 채 법률 위반을 내세우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들먹이는 그 태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 갑은 법이 공유된 정의관을 어길 경우에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다고 보며, ㉡ 을은 공동체 내에서 단일한 정의관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 갑은 시민 불복종이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며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함을 강조하며, ㉣ 을은 시민 불복종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저항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 갑, 을 모두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공동체에서 합의된 정의관에 대한 저항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48)[18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다 골라.

갑: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 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인민이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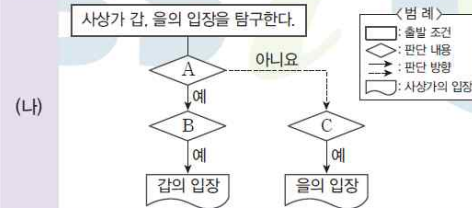
을: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경계에 있는 항의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극단적인 변화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방도까지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갑: 정부는 인민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 ② 갑: 정부가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인민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
- ③ 을: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경우에도 법에 대한 충실성은 지켜져야 한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은 전투적인 행위나 강력한 조직적 저항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혁명을 시도할 수도 있다.

149)[20 ebs 수완]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골라.

갑: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을: 시민 불복종을 통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중단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이 배면 뱀수록 불복종은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 보기

- ㄱ. A: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해져야 정당성을 얻는가?
- ㄴ. B: 시민들의 공유된 정의관 자체를 바꾸기 위한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ㄷ. B: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의 호소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 ㄹ. C: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 복원하려는 시도일 수 있는가?

150[20 ebs 수완] 골라.

갑: 다수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도 불의의 하수인이 된다.

을: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규제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적인 정의관이 있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이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침해될 경우,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유린이 있을 경우 불복이나 저항이나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보기**

- ㄱ. 갑: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 ㄴ. 을: 다수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더라도 이를 항상 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범위 내에서 불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드러낸다.
- ㄹ. 갑, 을: 폭력적인 저항을 포함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으로 용인된다.

151[18 ebs 수완, 윤사]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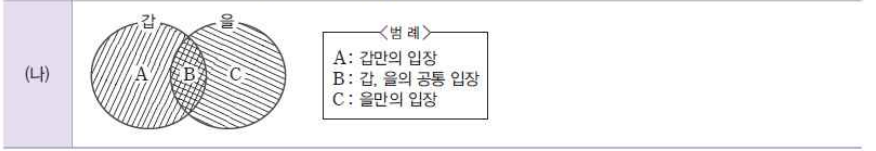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만일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로운 경우에 모든 사람은 현존 체제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는다. 사람들은 약속 혹은 다른 방식의 자발적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제도의 구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적 의무의 원칙들은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 공공연한 혹은 암묵적인 합의나 자발적인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보기**

- ㄱ.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 ㄴ. 정의로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를 자연적 의무라고 본다.
- ㄷ. 자연적 의무는 의무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부과된다고 본다.
- ㄹ. 자연적 의무는 부정의한 제도와 법도 언제나 따를 것을 명령한다고 본다.

152[22 ebs 수완]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다수가 갖는 정의감에 근거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을 을 선언해야 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으며, 시민 불복종은 정의 원칙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다수가 아닌 양심에 의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없는가? 법은 사람들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 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부정의한 정부에 불복하기보다 불복종의 처벌을 받는 것이 모든 면에서 잃는 것이 적다.



- 보기**
- ㄱ. A: 부정의한 법이라도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 ㄴ. A: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ㄷ. B: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정의 실현을 위한 양심적이고 도덕적 행위이다.
  - ㄹ. C: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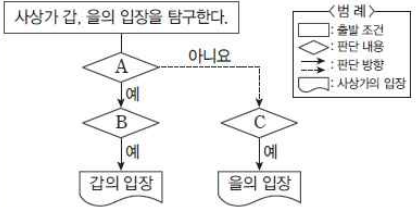
153[22 ebs 수완]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가 동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 체제로 해석되는 경우,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다.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① 시민 불복종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②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권위에 대한 저항을 수용하지 않는다.
- ④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입헌 체제의 변혁을 지향하는 위법 행위이다.
- ⑤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전개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54[22 ebs 수완]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의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보완하려는 시도이며, 특정한 원칙에 대한 호소가 아닌 결과주의 관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비록 그 사회에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더라도 정의의 원칙이 사회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 공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나) 

- 보기
- ㄱ. A: 다수가 아닌 소수의 시민들이 제기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되는가?
  - ㄴ. B: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 ㄷ. C: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은 항상 개인의 이익과 배치되는가?
  - ㄹ. C: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입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방법인가?

zola amazing 답

- 1) ㄱ, ㄴ.
- ☞ Zola Guide 이것은 '윤리학'임. ㄷ은 사회학임. ㄹ은 '가치 배제', '가치 중립적'이 틀렸음.
- 2) ㄱ, ㄴ, ㄷ, ㄹ
- 3) ㄱ
- 4) ㄱ, ㄴ, ㄷ
- 5) ㉔
- 6) ㄱ, ㄴ, ㄷ, ㄹ
- 7) ㄷ, ㄹ
- 8) ㉕
- 9) ㄴ, ㄷ
- ☞ Zola Guide ㄴ 판단 틀렸으면 유·도·불 개별 내용 하기 전에 Zola가 뭘 강의해줬는지 확인 다시 하고 백지 복습할 것!~
- 10) ㉖
- 11) ㉗
- 12) ㉘
- 13) ㉙
- 14) ㄱ, ㄹ
- 15) ㉚
- 16) ㉛
- 17) ㄱ, ㄴ, ㄹ
- ☞ Zola Guide 장자의 입장에서 유가(사례의 갑) 까는 내용임을 독해할 줄 알아야 함. 동양 특히 도가 제시 문은 문학적인 독해가 필요함.
- 18) ㉜
- ☞ Zola Guide 선지 ㉝를 선택하지 않은 자신을 성찰하길 바람.
- 19) ㄱ, ㄴ, ㄹ
- 20) ㉞
- 21) ㉟
- 22) ㊱
- 23) ㄱ, ㄷ, ㄹ
- 24) ㄴ, ㄷ, ㄹ
- 25) ㊲
- 26) ㄱ, ㄷ, ㄹ ☞ Zola Guide ㄴ 수업 시간에 설명했음. 1학기 프린트에도 있음. 1학기 수업에서도 다루었음.
- 27) ㊳
- 28) ㄱ, ㄴ, ㄷ
- 29) ㊴
- 30) ㄱ, ㄴ, ㄹ
- 31) ㄴ, ㄹ ☞ Zola Guide ㄷ 나름 고난도(뉘는 선지)일 듯.
- 32) ㊵
- 33) ㄱ, ㄷ
- 34) ㊶
- 35) ㊷
- 36) ㄱ, ㄷ
- 37) ㄱ, ㄴ, ㄹ
- 38) ㊸
- 39) ㊹
- 40) ㄱ, ㄴ, ㄷ ☞ Zola Guide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비교임.
- 41) ㊺
- 42) ㄱ, ㄹ ☞ Zola Guide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임.
- 43) ㄴ, ㄹ
- 44) 2, 3, 4, 5, 6
- 45) ㊻
- 46) ㊼
- 47) 갑, 을, 병
- 48) ㊽
- 49) ㊾
- 50) ㉓ ☞ Zola Guide 의도적 행위=업(業). 오답 선지 중에는 어느 한 쪽 입장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니 신

경쓰지 말 것.

- 51) 가, 나, 다
- 52) 다
- 53) 정
- 54) ③
- 55) 나, 다, 라
- 56) 을
- 57) ①
- 58) ③
- 59) 가, 나, 다
- 60) ④
- 61) 가, 나, 다 ☞ Zola Guide 다: '복제된' 인간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의미임.
- 62) ⑤ ☞ Zola Guide ㉠ 인간 존중의 원칙, ㉡ 정의의 원칙
- 63) 나, 다
- 64) ①
- 65) ⑤
- 66) ②
- 67) ③
- 68) ④
- 69) 가, 나, 다
- 70) 가, 다
- 71) ④
- 72) 나, 다
- 73) ①
- 74) ③
- 75) 가, 다
- 76) ④
- 77) ⑤ ☞ Zola Guide 유교 사상임.
- 78) 1, 2, 3, 4, 5, 6
- 79) 가, 나 ☞ Zola Guide (나)는 불교의 '우란분경' 내용임. 우란분경은 불교적 효에 대한 경전임.
- 80) 나, 다
- 81) 나, 다
- 82) 가, 나
- 83) ⑤
- 84) 나, 다, 라
- 85) 가, 다, 라
- 86) 가, 나
- 87) 을
- 88) 가, 다
- 89) 가, 다, 라
- 90) 나, 다
- 91) 가, 다
- 92) ④
- 93) 나, 다
- 94) 무
- 95) 가, 나, 다, 라
- 96) 가, 다
- 97) 나, 다, 라
- 98) ①, ②, ④, ⑤
- 99) 가, 나, 다
- 100) 가, 나
- 101) ①
- 102) 다, 라
- 103) 가, 나, 다
- 104) 가, 나, 다
- 105) 가, 다, 라
- 106) 나, 다
- 107) 3

- 108) 나, 다
- 109)

질문	갑	을
①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위임해야 하는가?	아니	응
② 개인의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응	아니
③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하고 분배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가?	응	아니
④ 소득과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니	아니
⑤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는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하는가?	아니	응

- 110) 다, 라
- 111) 나, 다
- 112) 나, 다
- 113) 1
- 114) 4
- 115) 가, 다
- 116) ③
- 117) ③
- 118) ③
- 119) ①
- 120) ③
- 121) 가, 나, 다
- 122) ③
- 123) 모두!!!
- 124) 다, 라
- 125) 나, 다
- 126) ③
- 127) 가, 나, 다
- 128) ③
- 129) ①
- 130) 가, 다
- 131) ③
- 132) 2
- 133) 을
- 134) 가, 나, 다
- 135) ④
- 136) ⑤
- ☞ Zola Guide 연관 개념은 '민본주의'임
- 137) ⑤
- 138) 가, 나, 다
- 139) 가, 다
- 140) ⑤
- 141) ③
- 142) ④
- 143) ⑤
- 144) 나, 다, 라
- 갑-맹자(유가, 민본주의), 을-로크(사회계약론)
- 145) ①
- 146) 가, 나, 다
- 147) ㉠
- 148) 1, 2, 4, 5
- 149) 다, 라
- 150) 가, 나, 다
- 151) 가, 나
- ☞ Zola Guide 롤스의 '자연적 의무' 알아둘 것!
- 152) 가, 다
- 153) ①
- 154) 나, 다